# 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7호 (8월 2~8일)




**노작**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조국통일의 구성 **인덕정치 1, 2**

## 특집1 - 조러 모스크바 선언

## 특집2 - 연세대에서 통일대토론회

계획 대전충남지역 학생운동 대토론회

대담 이회창의 죄행 파해쳐본다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

6.15공동선언실현투쟁

보수, 진보 진영이 6.15남북공동선언실천 함께 한다

전국 곳곳 통일대행진

단죄규탄

6.15공동선언과 이회창 /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매장하자! / 남북관계개선에 역행하는 한나라당

6.15주간 편집부

# 6.15주간

6.15WEEKLY

제7호 (8.2~8)

#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1.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승리의 비결이며 동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이남민중 속에 광범히 선전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고조되고 있는 흠모의 대하가 더욱 높이 굽이치도록 한다.

2.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경륜을 이남민중 속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각계 민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자각적으로 총궐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사상적 바탕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는 한민전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여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주체사상학습소조가 수많이 건설되도록 한다.

4. 우리는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여타 통일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각급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이 남북간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이 거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한총련과 한청을 통일적 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한편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민족민주전선을 비약적으로 장성발전시키도록 한다.

6. 우리는 학생운동대오와 민족민주전선, 지역통일전선내 분파주의를 청산하는 사상운동을 운동대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호응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하루속히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8.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전면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민중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이룩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철저히 진압하도록 한다.

9. 우리는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하며 청년주체주의자대오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강위력한 지도핵심대오를 건설하도록 한다.

10.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실현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머물지 않고 통일변혁운동을 계속 전진시켜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광장에 높이 모시는 감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며 21세기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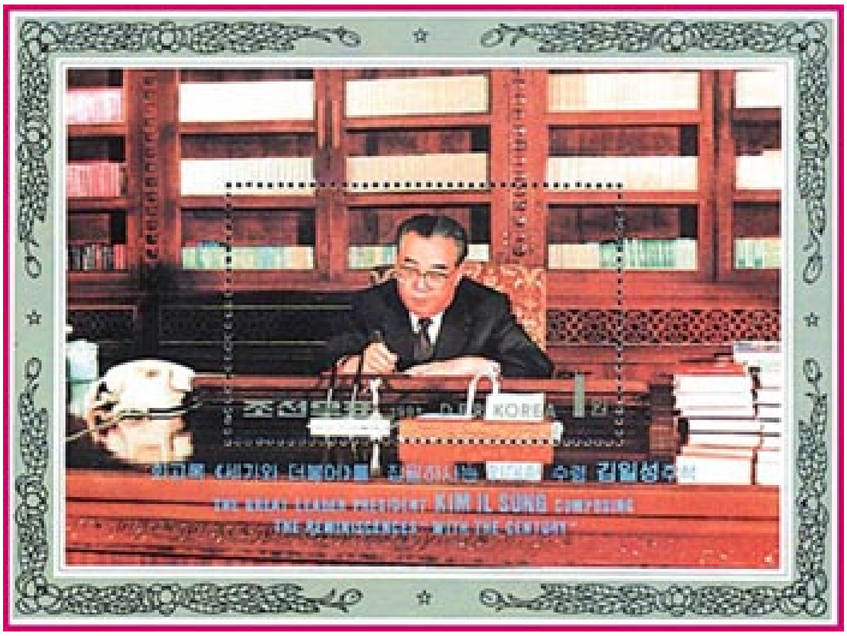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서울

#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 세기와 더불어 제1권




아버지를 만나려고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봉화리로 찾아왔다. 아버지자신도 동지들을 찾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를 자주 돌아다니었다. 그 과정에 핵심들이 육성되고 군중적지반이 축성되었다.

이런 준비에 토대하여 아버지는 장일환, 배민수, 백세빈 등 애국적인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 있는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였다. 조선국민회에 망라된 청년투사들은 손가락을 잘라 ≪조선독립≫, ≪결사≫라는 혈서를 썼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1917년이라면 국내에 비밀결사가 별로 없을 때였다. 합병후 조직된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과 같은 단체들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이무렵에 와서 모조리 해산되었다. 지하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가차없이 잡아가던 때여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런 활동에 가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뜻있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국내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이런저런 반일단체들을 만들어내는 정도였다. 그럴 용기마저 없는 사람들은 조선경내에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었다.

이런 때에 조선국민회가 태어났다.

조선국민회는 반제자주적인 립장이 투철한 혁명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의 취지서에는 장차 구미세력이 동양에 부식되고 일본이 그들과 패권을 다투게 될 시기가 닥쳐올것은 명백하므로 그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의 결속을 도모하여 그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취지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국민회는 외부세력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간도에 동지들을 파견하여 그곳을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도 세웠다.

조선국민회는 그 조직이 매우 치밀하였다. 조선국민회에는 준비되고 검열된 애국자들만 엄선하여 받아들였으며 종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회원호상간에도 암호를 사용하였다. 비밀문서들도 암호로만 작성하였다. 조선국민회는 매해 숭실중학교 개학날을 계기로 회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그이후 조직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로써 철저히 위장되었다. 조선국민회는 산하에 구역장들을 두었으며 해외인사들과의 련계를 위하여 베이징과 단동에 통신원들을 배치하였다.

조선국민회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우에 선 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에는 로동자, 농민, 교원, 학생, 군인(독립군), 상인, 종교인, 수공업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다 망라되어있었으며 그 조직은 국내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해, 길림, 무송, 림강, 장백, 류하, 관전, 단동, 화전, 홍경 등 외국에까지 널리 뻗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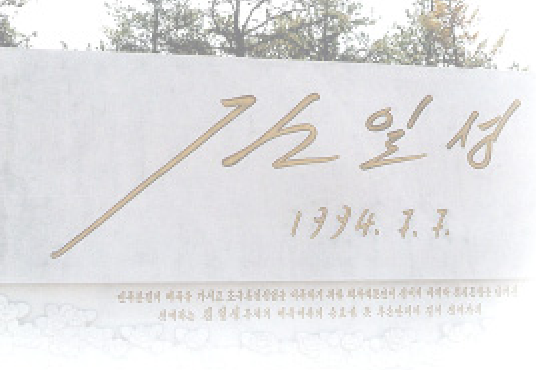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아버지는 장철호, 강제하, 강진건, 김시우 등 많은 동지들을 획득하였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지를 찾는데 기울인 아버지의 로고는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동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성원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20일






나는 오늘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친 쌍방대표단성원들과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울여 온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를 보게 된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서 하나의 리정표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입니다.

북남합의서와 공동선언이 발효됨으로써 북과 남은 불신과 대결로 이어 진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되였으며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통일을 향해 나갈데 대하여 서약한것은 어떤 외부세력도, 사상과 제도의 그 어떤 차이도 수천년동안 한피줄을 이어 온 우리 민족을 갈라 놓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여러분들의 회담성과를 두고 민족공동의 성과로, 민족적리념의 력사적승리로 여기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참으로 귀중한 첫 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이 걸음은 이제 멈추어서도 안되고 주춤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래일의 통일에로 이어 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빚어 진 우리 나라의 분렬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스스로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 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외세의 힘에 의존하고 외세의 간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대결하려는 자세이지 통일하려는 자세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로써는 북과 남의 합의사항도 제대로 리행할수 없으며 서로 책임질수 있고 신뢰할수 있는 대화도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화해를 약속한 이상 이제는 대결관념을 버리고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동족을 신뢰하고 민족자주력량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또한 평화문제의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불가침에 합의한 조건에서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불가침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도 여기에 있고 북침과 ≪남침≫의 위구를 완전히 가시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안에 외국군대도 있을 필요가 없으며 외국의 군사기지도 있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해결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조선에 아직 핵무기가 있는지 아니면 다 나갔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30여년동안이나 핵위협을 받아 온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오늘도 가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거듭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는것은 물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대결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우기 동족을 멸살시킬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가질수 없을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입니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면 어차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이단시하는것은 민족을 사분오렬시키는 결과밖에 가져 올것이 없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상의 장벽, 제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온 민족을 단합시키는 폭 넓은 민족대단결과 애국애족을 지향하는 정치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합의문건들은 북과 남의 책임 있는 당국이 민족앞에 다진 서약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번의 력사적인 합의문건들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한 고귀한 결실로 여기고 그 리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튼튼히 서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호상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수 있고 온 민족이 바라는 90년대통일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끝으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더욱 힘 있게 열어 나가며 쌍방대표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 인덕정치 1

##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정치가로서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은 정치방식에서 가시화된다.

**김정일**정치방식으로 명명하여 마땅할 이북의 인덕정치는 그분의 지론인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구현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의 기본이며 본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 **≪우리는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왕재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한 농장원의 가정생활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64(1975). 3]

인덕정치, 광폭정치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민중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고 사랑과 믿음으로써 그들을 인류리상사회에로 이끌어 가는 정치이다. 다시말하여 ①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는 정치, ② 인간의 자주적 존엄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실현하는 정치, ③ 각계각층 모든 민중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정치이다.

원래 정치와 사랑은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정치와 사랑은 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성적 요구, 사회적 집단생활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착취사회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고 대립되여왔던 정치와 사랑의 결합문제는 **김정일**령도자의 사랑의 정치철학에 의해 비로소 해결되였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고전적 해명을 주시였다.

>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이야말로 인간을 완성시켜 주는 최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철학입니다.**
>
> **참된 사랑이란 인간의 자주성을 최대한 발향시켜 인간을 완성시키는 힘이며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혁명, 즉 자연과 사회와 사람을 변혁, 개조하는 정치를 통해서 실현된다.

사랑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기에 불변의 사랑을 쏟아붓는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민중과 정치적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공고한 뉴대를 이루어낼 수 없고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다. 사회관계에서 계급적 대립이 청산되고 인간관계에서 대립과 불신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전환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사회적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 사이, 개개의 구성원들 사이에 꽃피고 그것은 수령과 민중들 사이에서 가장 숭고하게 발현된다. 바로 그러기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사회주의정치의 본질로 규정하고 정치시행의 원동력으로 천명하신다.

> ≪사랑과 믿음, 이것은 인민대중이 정치의 대상으로부터 정치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의 본질을 이룬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인덕정치라고 한다.≫(≪사회주의는 과학이다≫, 35페지)

> **≪믿음과 사랑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무엇에 의거하여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의 좌표와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이며 그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이다.

적대계급사회에서 지배세력은 민중을 호령하고 얼리는 ≪채찍과 당근≫의 정치방식을 구사한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강제와 기만의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착취계급과 민중은 그 리해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돈이나 물질적 수단을 기본으로 삼아 정치를 시행하는 방식 역시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다. 인류리상사회건설 그 자체가 민중을 위한 민중자신의 위업인 만큼 사회주의정치방식은 어디까지나 민중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는 정치방식이여야 한다.

새 사회 건설은 민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정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어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창의력을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김정일**정치방식의 요체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은 그 어떤 명령이나 보수보다 강위력한 힘을 나타낸다. 민중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투쟁의 원동력이며 충성을 불러내는 활력소이다. 근로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에 보답하려는 그들의 불타는 충성, 이것이 하나로 융합되여 변혁과 건설은 거세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덕정치가 곧 포괄적이 광폭정치

임을 지적하신다.

**≪나의 정치는 언제나 광폭입니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 한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매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사회주의는 과학이다.≫, 42~43페지)

원래 정치의 진보성과 우월성은 민중의 자주적 요구에 대한 충족수준과 함께 민중에 대한 사랑의 포괄범위에서 표현된다. 보다 광범위한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한 사상일수록 더 위력한 사상인 것처럼 보다 광범위한 민중에게 빠짐없이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정치일수록 참다운 정치인 것이다.

**김정일**정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품에 안아 진실한 믿음을 주고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광폭의 정치인 까닭에 더욱더 위대한 정치로 된다.

이북에서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라는 전대미문의 위업이 성공을 거둔 것은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고스란히 체현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철학과 특출한 정치적 자질과 고매한 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사회주의제도가 새워졌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간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어줄 따름이다. 인간중심의 참다운 정치는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는 걸출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녀야 한다.≫**

는 **김정일**령도자의 인식과 통찰이야말로 그분의 정치철학과 정치풍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거룩한 정치적 풍모를 지닌 정치의 영재로 정평이 나있다. 그분의 정치적 식견과 통찰력, 거대한 포용력과 친화력, 탁월한 조직력과 격의없는 대중성은 완벽에 이르고 이것이 그분의 숭고한 덕성과 결합되여 총체적으로 완벽한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김정일**령도자의 수많은 저작들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사상과 리론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마다 그분을 따르는 마음의 충동을 느끼군 한다. 하지만 그분의 위대성은 사상리론적 자질도 자질이려니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끌어안는 특유의 매력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무릇 인심을 얻고 천하를 얻으려면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고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정치가 그릇이 작으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고 정치가가 도량이 좁으면 대중이 외면한다. 정치가의 지도력에서 포용력을 중시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전민중을 굳게 결속시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 지도자의 포용력은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정치적 지도자의 관용성과 포용력이 없는 곳에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뿌리내릴 터전이 없다. **김정일**령도자의 광폭정치에서 그분의 거대한 포용력을 가히 실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복잡한 군중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동력이며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까지 같이 가야 할 혁명동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사회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새겨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리력문건에 씌여있는 성분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갈라보고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인정하시고 혁명은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한다고 강조하신다. 물론 성분이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사상의식발전에 일정정도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가 사상은 아니며 사람들의 사상은 성분이 아닌 그의 실천활동에서 표현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다.

**김정일**령도자의 포용력은 실로 바다처럼 크다. 마음을 보고 사람을 믿으며 심지어 지난날에 칼을 품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안아주는 것이 그분의 믿음이고 사랑이며 도량이다. 참으로 그분의 광폭정치에 의해 이북의 전민중이 한사람의 내버려진 운명도 없이 사회주의대가정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보람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다. 그것은 경륜보다고, 언변보다도, 정치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원천적 인 것이다.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만 정치적 지도자의 권위가 생길 수 있다. 도덕적으로 권위있는 정치가를 위해서만 민중은 개인의 리익을 희생하고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믿음이자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요, ≪민심은 천심≫이란 말에 깊은 정치철학이 담겨져 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시행과정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같은 **김정일**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해서 시행되는 정치이다.

주체형의 혁명적 당은 근로민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정치적 령도조직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을 계급투쟁의 무기라기보다 어머니당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하신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회주의는 과학이다≫, 36페지)

조선로동당은 그 구성원인 간부들과 당원들이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봉사정신을 지닐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의 간부와 당원의 정치적 도덕은 ≪고생은 남먼저 하고 락은 뒤로 미루며 어려운 일은 스스로 맡아하고 성과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우와 같은 책)이라는 **김정일**령도자의 명제에 함축돼있다. 이북에서는 간부들의 그러한 대민사업태도와 도덕성의 보편화에 의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쏘련과 동구권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행세하고 권력을 람용하는 관료당으로 전락시킨 결과이다. 즉 쏘련과 동구권사회주의나라들의 침몰은 사회주의이데올로기의 패배가 아니라 도덕성의 타락에 기인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그만큼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고 그를 통해 인덕정치를 시행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운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주체형의 로동계급의 당과 함께 인민정권의 활동에도 의존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은 민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이고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이며 국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인민정권의 지도가 민중에 대한 혈연적인 사랑에 바탕하지 못할 때 사회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확보할 수 없고 나아가 전사회적인 단합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 자체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적 인민정권과 민중이 서로 친근의 정을 나누며 서로 신뢰하는 일체감을 지니고 공동목표를 향해갈 때 자연히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가 실행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령도자의 덕성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과 진정한 인민정권을 인덕정치, 광폭정치 실현의 공간으로 삼아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이북사회에 꽃피우신다.

# 인덕정치 2

##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한 농가에 들리시여 친부모의 심정으로 살림형편을 살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64(1975). 3]

그러면 **김정일**정치인 인덕정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가?

인덕정치는 첫째,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관한 **김정일**령도자의 명제를 다음에 인용한다.

>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사랑과 믿음은 중요하게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28～29페지)

정치의 기본은 정책의 작성과 그 관철에 있는 만큼 무엇을 기준으로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어떻게 그것을 관철하느냐는 문제는 정치의 진가를 재는 척도가 된다.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민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적 가치로서 실행하는 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그분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민중의 리해와 의사에 립각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로선과 정책을 립안시행해 나가신다.

평양 천리마거리 한복판에 빙상관을 건설할 때에 있은 일이다. 건축설계가들의 건물설계안을 보신 그분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건물인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시며 빙상관을 시공할 자리에 기구를 띄우고 실물을 방불케하는 모형축조물을 세워 전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평양시민들의 찬의를 확인하신 후 공사를 본격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분은 이렇게 민중의 의견을 무엇보다 존중하시며 모든 일을 그들의 의견에 따라 전개하신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민중의 견해가 곧 가치의 기준이며 민중의 판단이 곧 사업방향이며 민중의 선택이 곧 결심으로 되는 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중의 창의력을 믿고 그에 의거하심으로써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성공리에 관철해 나가신다.

> **≪나는 지금도 혁명가의 첫째가는 실력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란 말로 비유되는 평양의 도시건설은 그분께서 이북민중의 슬기와 재능, 혁명적 열의와 창의력을 믿고 그것에 의거하여 이룩하신 빛나는 창조물인 것이다.

인덕정치는 둘째, 사람들의 사상정치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으로 시행된다.

>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은 또한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데서 표현된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29페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보살펴주는 것은 **김정일**령도자의 모든 정치활동에 일관되여있는 근본원칙이다.

1988년 1월 평안북도 룡천군에서는 지난 6.25전쟁시기 민중앞에 죄를 짓고 죽었다는 사람들의 가족 420여명이 한날한시에 애국렬사증을 수여받은 일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그리 크지 않은 한 개 군에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난날 못살던 사람들이 민중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으시여 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를 똑바로 확인하라고 지시하시였다.

> **≪우리는 룡천군 인민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심중한 문제인 것만큼 힘이 좀 들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해명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룡천군에서는 전후 근 40년동안 기정사실화되여 뚜껑을 덮어두었던 문제를 놓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벌어졌다. 그리하여 민중앞에 죄를 지었다던 그들 모두가 원쑤들에게 피살된 애국렬사로 판명되고 그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애국렬사증이 수여된 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영화부문을 직접 지도하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그분께서는 한 무명의 영화배우가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였다. 원래 이남에 고향을 둔 그는 8.15광복직후 서울의 진보적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다가 탄압이 심해지자 피신해 있었는데 그사이 리승만정권은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본인 모르게 반동단체 성원명단에 올려놓고 마치 그가 ≪사상전향≫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에 공개했던 것이다. 6.25전쟁때 그는 의용군으로 입북해서야 비로소 배우로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지만 반동단체에 이름이 올라있던 그 루명만은 벗을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남모르는 고민이 쌓여있었던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배우를 부르시여 그에게 믿음을 주시였다.

> **≪나는 동무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무효요!≫**

그 배우는 그후 인기있는 ≪인민배우≫가 되였고 그의 딸 역시 유명한 주연급 녀우로, 민중의 사랑받는 ≪인민배우≫로 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북의 인덕정치의 밑바탕에는 민중 한사람 한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이는 **김정일**령도자의 정성과 믿음이 자리잡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천만사람의 정치생활을 어느 한 구석도 그늘진 곳이 없게 보살펴주시는 영원한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그분은 민중의 정치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향상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다.

1979년 4월 효모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소집된 협의회에서 나라의 재정사정을 놓고 공장건설을 뒤로 미루었으며 하는 간부들을 간곡히 타이르신 그분의 절절한 말씀에도 그것을 력력히 새길 수 있다.

>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봐야 한다, 나는 타산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산할 때가 있지 아무때나 수판알부터 먼저 튀기지는 말아야 한다, 수판알로 계산만 하면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모두 자기 어머니들을 생각해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어서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태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인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였다,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랑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해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국고금을 아낌없이 털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다.≫**

정녕 그분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등대섬의 두세아이를 위해 사랑의 학교를 세워주시고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 통학렬차, 통학뻐스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주민 몇세대를 위해 텔레비죤중계탑까지 세워주도록 하시며 3태자, 4태자의 출산을 위해 사랑의 비행기를 띄우시고 국가적 혜택으로 키우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실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지금 이북에서는 민중적 시책속에서 개개의 가정, 개개인은 누구나 다 골고루 의식주문제를 보장받을뿐 아니라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고 무료교육, 무료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눈에 띄우지 않는다. 마치 빛이 모든 것을 보이게 하지만 그 스스로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북의 민중복지상은 그대로 **김정일**령도자의 인덕정치가 낳은 빛나는 현실인 것이다.

인적정치는 셋째로, 모든 일군들의 인민성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관해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일군들의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30페지)

관료주의와 세도로 민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당과 정권이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솔선수범을 통해 간부들이 민중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민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하신다.

군중속으로 들어가자. 군중은 현명한 스승이고 현실은 훌륭한 교과서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그분께서는 늘 민중을 찾아가시여서는 용광로앞에서 일하는 용해공들과 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을 만나시여 격의없이 이야기하시고 기계의 동음속에서 선반공의 이야기도 주의깊게 들으시며 합숙과 식당에도 들리시여 생활의 구석구석을 알아보신다. 농촌을 찾으시면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허물없이 담화도 하시며 가정방문을 하시면 방바닥을 짚어보시고 쌀독과 장독도 열어보시며 주부의 소박한 의견도 귀담아들으신다. 상점에 들리시여서는 주문대장도 펼쳐보시고 학교를 찾으시면 교수참관도 하신다. 그분께서는 이토록 민중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가보아야 한다시며 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언제나 민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민중을 일깨워주시고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신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모든 간부들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시며 인간성과 인정미를 소유하도록 가르쳐주신다.

> **≪일군들은 높은 인간성과 인정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이 대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50페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어느 한 광산실태에 관한 료해에서 그곳 건조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얼굴에 흑연가루가 앉군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분께서는 즉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상정치국회의를 열고 각 도의 책임간부들을 평양으로 부르시였다.

회의에서 광산 흑연건조장의 실태가 통보되고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에 무관심한 그 도의 책임간부들이 집중비판되였다. 그분은 회의가 끝나자 그 도의 책임간부를 따로 부르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 **≪동무가 일을 잘하지 못하여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 나에게 용서를 빌 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앞에서 사죄하여야 합니다.**
>
> **도당책임비서는 물론, 총리도 나도 다 그런 작업조건에서 일하게 한데 대하여 로동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합니다.… 일군들의 잘못에 대한 판결권은 로동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북의 전역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대 선풍이 불었던 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당과 인민정권의 모든 간부들이 인민의 충복으로 헌신적으로 살며 일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며 언제나 그 앞장에서 솔선수범하시는 ≪인민위천≫, ≪이신위민≫의 정치가이시다.



특집1

# 조 · 러 모스크바 선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님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4일 크렘린 대광장에서 진행된

조-러 ≪모스크바 선언≫

조인식에 참석하여

선언문에 각각 서명했다.

*조-러≪모스크바 선언≫ 전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연방대통령이신 푸틴각하의 초청에 의하며 2001년 7월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으며 8월4일과 5일 공식 방문하시었다.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최고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러 친선관계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 및 기타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의의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륜적 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정 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3.**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19일에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이 서명한 조-러 공동선언과 2000년 2월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 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재에서의 과거문제들을 보도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측은 일련의 쌍무계획 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이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 연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 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공식관계 설정이 적극화되고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같은 나라들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 기간 러시아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러시아연방대통령 푸틴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었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러시아연방대통령 푸틴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나는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하여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애국적인 열정에 넘쳐있는 귀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러시아연방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국제관계 전반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한 자기의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정력적인 노력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틴대통령 각하가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다지고 사회정치적안정과 민족적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영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귀국인민이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김정일국방위원장 연설문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각하, 러시아의 벗들, 나는 푸틴대통령께서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훌륭한 연설을 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 세기에 들어선 조,로 친선의 밝은 전망을 안고 귀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 친선을 세기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희망찬 새 세기에도 조,로 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새 세기의 뜻 깊은 첫 해에 여기 모스크바에서 가지게 되는 푸틴대통령과의 상봉이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를 보다 긴밀히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로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 푸틴대통령 연설전문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조선의 손님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로씨야(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크레믈리(크렘린)에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진심으로부터 환영하는 바입니다.

1984년과 1986년에 바로 이 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을 환영하는 연회들이 진행된 것은 상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을 것이며 우리들 사이에 솔직하고 보람있는 정치적 대화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랜 조선속담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사람들과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새 시대와 우선권들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선린과 다방면적인 협조의 오래고 변함 없는 전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더 귀중합니다.

이 전통들은 세월의 시련을 이겨내며 조선의 독립국가 창건시기에 공고화되고 나라의 전후복구 기간에 풍부화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통들이 1년반 전에 조인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바탕으로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건은 호상(상호) 존중과 창조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로,조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확인하고 우리들 사이의 합작을 심화시키기 위한 주되는 기초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절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통된 태도를 확인하는 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의 협정의 보물고를 보충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공정하고 안전한 국제관계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협력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문제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목표 및 원칙과 상통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로,조협조의 관건적 문제의 하나는 무역경제 연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두 나라의 이웃들도 참가하는 협동을 포함한 경제적협동은 큰 재정적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를 건전하게 하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도, 대한민국하고도 다양한 실속있는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조선민족과 지역 전체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믿습니다.

호상 노력의 중요한 결과로, 북남조선 지도부의 지혜와 정치적 책임성의 표현으로 된 것은 지난해 여름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상봉입니다.

우리는 화해, 협조 및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취한 이 결단성 있는 조치를 환영합니다.

귀국땅에서 강구된, 쉽지 않지만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들은 북남공동선언에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자기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사람들과 염원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조선민족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바 그것은 곧 전체 조선인민의 번영과 지역의 평화 및 화해의 정착, 국제안전의 공고화입니다.

존경하는 벗들, 우리는 우리들 사이의 오늘 상봉을 지난해 여름에 평양에서 시작된 대화의 논리적인 계속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호상 신뢰의 정신, 호상 이해를 심화하려는 공통된 마음 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당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행복과 성과와 편안함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전통적으로 친선적인 로,조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여기에 참석 모든 조선손님과 러시아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 북-러 정상,미국의 패권전략에 공동대응

지난 4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여 양국간 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이 회담은 작년 여름 평양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방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공개적인 외교 일선에 나섰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번 ≪모스크바 선언≫은 발표 이전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모두 8개항으로 이루어진 선언은 크게 국제문제와 양국관계, 한반도문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양국간 공동인식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 반MD 연대

먼저, 국제적 문제에서 양국 정상은 ≪세계적 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유엔의 역할 강화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1항) 두 정상은 평등, 상호존중, 호혜적 원칙을 강조하고, 국제분쟁이 평화적,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미국이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개정 혹은 폐기를 추구하는 요격미사일 제한(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2항)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안보정책에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과 ABM 조약에 대한 공동 인식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MD 추진을 정당화하고 러시아와 전략적 균형을 깨뜨릴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 경제협력으로 양국 실리 획득

둘째, 양국관계에서 두 정상은 작년에 서명한 북-러 공동선언(7.19), 북-러 친선협조조약(2.9)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친선협조관계가 양국간 이익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3항)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4항)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에서 과거 러시아 기술로 건설된 공장, 특히 전력발전소 재건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는 ≪북한의 이해 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하였다.(5항)

또 한반도-러시아-유럽을 잇단 두 횡단 철도 건설사업에도 합의하였다.(6항) 선언에 나타난 양국간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물론, 한반도에서 중장기적인 이익 선점을 위한 공동기반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노후하거나 부족한 북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한 러시아의 무기 판매는 주로 육상무기와 전투기 등으로 알려졌으나, 그 규모는 북한의 연간 무기 구매력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통일의 자주 원칙 강조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양국 정상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하였다.≫(7항) 마지막 항에서 선언은 ≪주한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한국과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또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덧붙이며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을 지지하였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자국이 미국, 중국보다 영향력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을 지렛대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 주한미군 문제, 대북 경제협력 등에 대한 입장도 이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러 양국은 앞으로 시베리아 및 한반도 횡단철도 연결사업과 반MD 연대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군사적 분야에서 남북협력 강화해야

한편,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을 볼모로 추진되는 미국의 MD 계획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점은 앞으로 이뤄질 북-미 대화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러 정상회담이 남북대화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달리 푸틴대통령의 **김정일**위원장 서울 방문 촉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 여기에는 악화된 북-미 관계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의 약화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프로세스의 활성화는 양측에 이익을 주는 계기의 실천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횡단철도 사업 등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아무래도 정치군사문제는 북-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모스크바 선언≫에서 북-러 정상이 북-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푸틴대통령이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통일뉴스 2001-08-06
(2001-08-06)
서보혁기자(bhsuh@tongilnews.com)

# 연세대에서 통일대토론회 열려

연세대 총학생회 주최 ≪신 북녘바로알기 통일 제1막 1장≫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인 ≪통일대토론회≫가 3일 저녁 6시 연세대 제2인문관에서 열렸다.

장정규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제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방향≫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교수는 ≪민족자주화와 주한미군≫이라는 발제를 통해 남북한 민족자주화의 역사와 현주소를 비교 검토하였다.

강정구교수는 북한의 민족자주화의 역사를 ▲우리식 사회주의로 표현되는 ≪대내적 주체노선≫ ▲중.소 등 사회주의 강대국의 패권에 맞선 ≪대외적 자주노선≫ ▲해방공간,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의 반외세자주화투쟁≫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또한 강정구교수는 남한의 민족자주화의 현주소와 관련, 그 가장 큰 걸림돌이 주한미군에 있다며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주제에서 안재구(통일운동가)씨는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담장을 걷어내자≫는 발제문을 통해, 그 담장을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과 국내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했다.

안재구씨는 반통일세력이 쌓아놓은 분단의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통일세력이 퍼뜨려 놓은 반북의 허위를 벗겨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북 바로 알리기 운동≫이며 ▲≫반통일세력이 주장하는 이북의 통일방안이 이남을 적화통일하는 것이라는 허위를 벗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남북 통일방안≫에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제한 김남식(통일뉴스)상임고문은 남한의 경우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서 각각 제시된 연합제안을 비교했으며 그리고 북한에서의 연방제안의 제시 및 변화과정을 설명했다.

김남식상임고문은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연방제안에 대해 ▲두가지 방안 모두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는 통일방안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며 ▲남측의 연합제안에서의 남북연합은 다음 단계인 연방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서 ≪연방제≫를 수용하고 있어, 이는 북측 연방제안과의 형태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남식상임고문은 두 가지 방안의 차이점에 대해 ▲북측의 연방제안은 처음부터 1민족 1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남측의 연합제안은 1민족 2국가로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북측의 연방제안은 통일에 있어 제도통일과 민족통일을 구분하고, 제도통일은 훗날에 미루고 우선 민족통일을 하자는 것이며 그러자면 남북의 제도상의 차이를 초월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기구(통일기구)를 창설하자는 것에 비해, 남측의 연합제안은 북측과는 달리 제도상의 공통성을 전제로 한 연방국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남식상임고문은 남북의 지도자가 합의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의 길을 가야하는데 특히 6.15공동선언의 제2항은 사실상 ≪연방제≫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남북한은 각각의 통일방안에 있어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입각해 통일문제를 푼다면, 이는 독일식의 제도상의 흡수통일이나 베트남식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제3의 방식이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식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서 김귀옥(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상임연구원은 ≪이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잘못된 관점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문제를 민족 중심 사고로 봐야 하며 ▲사대주의와 봉건주의에서 벗어나 북한 핵문제나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와의 교환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이중잣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광용(한양대학교 아태지역센터)연구교수는 북한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로 말하게 하라≫는 접근 방식인 ≪내재론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며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민족공동 이익≫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교수는 그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1990년대 중반 ≪북한붕괴론≫의 허구성을 지적한 뒤, ≪통일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통일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통일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하며 정치적 상상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있은 통일대토론회는 지난 달 말일부터 4일간 진행된 ≪신 북녘바로알기 통일 제1막 1장≫의 마지막 순서로 그간 강연자들이 모두 통일대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해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연 외에 ▲도서할인전 ▲사진으로 보는 북녘 사람들 ▲북녘 바로알기 선전거리 ▲북녘 물품판매 등 다양한 방식의 부대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정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방학중이고 또 휴가때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학우들이 도와주고 참여해 준게 큰 힘이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통일뉴스 2001-08-04
이계환기자(khlee@tongilnews.com)

# 서울대, 주체사상 토론회 개최





서울대 총학생회(회장 장종오) 주최로 4월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주체사상 대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집필했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문건이 사전토론자료중 하나로 배포됐다.

총학생회측은 이날 김위원장의 문건과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김남식씨가 쓴 ≪**김정일** 시대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논문, 조선일보 도준호논설위원이 쓴 ≪북한식 민족과 주체사상≫, 성균관대 강사 차문석씨가 쓴 ≪북한식 개발이데올로기로 강요된 주체사상≫등의 글이 실린 사전 토론자료집 500부와 토론자들의 발제문이 실린 토론 자료집 200부를 각각 배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김위원장의 논문이 실린 사전 토론자료집 배포와 관련, ≪주체사상에 대하여 여러 시각에서 서술한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정대연정책위원장은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개인 우상숭배론이 아니고 수령과 대중의 관계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소개한뒤 ≪주체사상의 수령관은 북녘 동포들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주체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북녘 동포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 강정구교수는 ≪북한의 건설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주체사상의 자구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면적≫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주체사상 접근을 강조했다.

반면 고려대 김형찬교수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조건이 변화했는데도 30여년 전에 발달한 사상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김정일**의 과제는 자기가 만든 주체사상을 수정하여 북한의 사정에 맞는 통치이념을 세우고 주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최규엽자주통일위원장은 ≪주체사상의 지지, 반대여부를 떠나서 주체사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토론이 기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사회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아.태평화재단 김근식박사는 재단행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도 불참했다.

(연합뉴스 이충원기자 2001/04/23)
(2001-04-23)

# 고려대, ≪주체사상과 이북사회≫ 토론회 성황리에 끝남



오늘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우강당에서 있었던 통일대토론회 ≪주체사상과 이북사회≫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 토론회는 이북사회와 그 사회를 규정하는 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쪽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하는 호소로 시작된 토론회였습니다. 국정원의 송두율교수 귀국불허방침과 방해 책동 등 토론회의 성사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기로 하셨던 모든 토론자들이 참여해서 성과있게 토론회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학사회 내에서부터 이북사회와 주체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열풍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세에서 물러섬없이 응전하여 수구보수세력을 더욱 궁지로 몰아 넣읍시다.

그럼 이후 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통일 대토론회 ≪주체사상과 이북사회≫준비단
34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 8월8일 경북대에서 주체사상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8월 8일 민족경북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민족 경북대는 8월 8일 주체사상 토론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반세기 한 많은 세월을 딛고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시기, 민족 복현에서부터 전민족의 통일대행진에 힘찬 날개를 달고자 합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노동자, 농민, 가수, 미용사, 기업가, 관광객...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전선 너머 북녘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북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6·15공동선언에서도 이야기된 바 있는 통일방안의 문제에서부터, 아직도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북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주체사상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복현의≪주체사상대토론회≫ 에서부터 우리민족이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 합니다.

★토론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조발제**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과정
(김남식선생님, 경실련 통일협회고문, 통일뉴스 상임고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안재구선생님,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
(강정구교수님,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민화협공동의장)

**-주제토론**

토론 주제 : 주체사상은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
금기와 편견을 넘어 이북을 제대로 바라보자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

사회자 : 이대영선생님(민주주의 민족통일 대경연합 정책위원장)
토론자 : 서옥렬선생님(비전향 장기수, 통일광장 회원)
김대용선생님(상신브레이크 노조위원장, 금속연맹 대구지부장)

★시간과 장소 : 8월 8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세미나실
★주체사상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주체사상 토론회≫가 가지는 의의와≪6·15공동선언과 우리의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제**

해방이후 통일운동의 역사와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과제
주체사상 토론회가 가지는 의의
강연자 : 안재구선생님
시간 : 8월 6일 오후 3시
장소 : 사회대 132호

**민족경북대 청년기백 33대 자주총학생회**



# 금년 8.15행사는 평양서 개최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남북 공동행사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측에선 서울로 한명도 오지 않고 남측에서만 300명 가량이 방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4일 대표단 9명이 지난달 31일부터 평양 고려호텔에서 ≪민족통일촉진 운동기간 북측 준비위원회≫관계자들과 8.15 행사 관련 2차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북측이 방남을 거부해 남측에서만 평양에서 열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귀국한 대표단에 따르면 2차 실무접촉 결과 북측은 1차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단 한명도 서울에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반면, 남측은 ≪서울-평양 동시개최≫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측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남측대표단은 올해 8.15 행사는 평양 행사를 주로 하되 내년 8.15에는 북측에서 서울에 온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지만 무산됐으며 대신 이번 8.15 행사시 공동문건을 채택하면서 내년 8.15 행사는 서울에서 연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측대표단은 북측이 애초 평양행사 장소로 요구한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부근에 대한 남측의 거부감을 고려해 다른 장소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앞으로 팩스교환 등을 통해 계속 장소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합의내용대로라면 남측대표단은 오는 14일 행사 참가자 300명과 기자단이 방북해 15-16일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 뒤 북측이 준비한 일정대로 백두산과 묘향산 등지를 둘러본 뒤 오는 21일 돌아오게 된다.

남북은 남측 참가자들이 방북하는 방법과 관련, 이산가족 교환 방문시 이용된 서해직항로를 이용하자는데 잠정 합의했으며 이번 행사에 앞서 논의됐던 남북 종교인 평화회의나 8.15 본행사에 앞서 14일께 청년학생행사를 따로 갖는 방안 등은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관계자는 ≪북측에선 이번 행사를 평양에서 성대하게 치르고 나면 올하반기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우리만 자꾸 방북하는데 대해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는걸 알고 있지만 북측의 사정을 이해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달 18, 19일 금강산에서 1차 실무접촉을 갖고 8.15 공동 행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북측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완공식에 맞춰 평양기념탑 부근에서 행사를 벌이자고 주장한 반면 남측은 ≪서울-평양 동시 개최≫를 주장,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이번 실무접촉에는 남측 추진본부에선 김종수, 조성우, 변진흥, 이승환, 한충목, 김이경씨 등 9명이, 북측에선 허혁필씨 등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보수, 진보 진영이 함께 한다

##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결성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충남의 보수, 진보 진영 55개 단체가 ≪통일≫ 이라는 민족의 과제 앞에 한자리에 모였다.

남북의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들 단체가 반세기를 돌아 ≪통일≫이라는 두 글자 앞에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년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6.15 남북공동선언≫.

6일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회 및 대전, 충남 시민사회연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등 지역 55개 보수, 진보 단체는≪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상임공동본부장 이명남, 박강수, 이하 대전충남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충남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앞으로≪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선언운동≫을 펼치기로 하는 한편 한시적이긴 하지만 8월 15일까지 1주일 여의 기간 동안 대전충남 일원에서≪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 내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해 분단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보수, 진보진영의 공동 통일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8월 15일 이북에서 치러지는 2001 민족공동행사에 대규모 참가단을 파견하는 한편,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통일≫ 문제와 관련한 지역의 보수, 진보 진영의 공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열려 있어 앞으로도 두 진영간의 공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충남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결성 선언문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라며 ≪6.15 선언 일주년을 경과하고 광복 56돌을 맞으며 6.15 선언을 거족적으로 지지하고, 2차 남북정상화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확고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남과 북 해외의 칠천만 겨레와 함께 거족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족공동행사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7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범시민다짐대회≫를 시작으로 10일 통일 토론회, 11일 대전충남지역 통일한마당, 12일 제6회 청소년통일노래한마당, 15일 통일 백일장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명남(통일연대 공동의장,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추진본부 상임 공동본부장은 ≪그 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단체뿐만 아니라 보수 단체까지 통일을 위한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진보, 보수 단체가 나누어지는 모습 없이 하나라는 인식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1/08/06 ⓒ 2001 OhmyNews
이기동기자 lee9801@ohmynews.com






# 우리 구민도 통일의 문을 열자

## 2001 부산 금정구 통일한마당

지난 4일 7시 대학로 앞은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 금정구 통일 한마당≫을 함께 하기 위해 모여든 학생, 구민 3백여 명으로 북적됐다.

남남북녀라 했던가? 남한의 건장한 청년 박기태(3) 전자전기공학과 학생회장과 검은 치마에 빨간 스카프를 맨 아리따운 북한 여성 동지의 모습을 한 김수현(3)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사회자의 재치있는 말솜씨로 행사를 시작했다.

흥겨운 풍물패 길놀이가 주위사람들을 하나둘 모으더니 여러 인사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먼저 부산대 상과대 학생들과 낮에 축구경기를 했던 천병철 부산지하철 정책부장님은 ≪통일 운동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해야한다≫며 ≪우리 금정 구민이 하나되어 앞장 서나가자≫라며 힘차게 말했다. 또한 아기를 데리고 무대에 오른 부산여성회에서는 ≪우리 자식에게는 통일된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여성이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다.

부산대 학생들과 연대하고 있는 거창군 농민회에서 농민이 참석해서 ≪학생들이 도와줘서 농사가 잘 되고 있다≫며 ≪농활을 통해 배운 것들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갑자기 빈 박스를 들고 무대위로 올라온 아저씨들. 통일을 꿈꾸는 30대 직장인으로 구성돼 국토순례, 모니터, 기행, 연극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통일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이다. 그들이 준비한 촌극은 통일을 주제로, TV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해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공감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다루었다. 박태룡 단장은 ≪우리나라가 외세 억압에서 벗어나고 부패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고, 분위기는 더욱 무르 익어갔다.

이어진 의류학과 이북의상 패션쇼는 초등학교 교복에서 작업복, 예복까지 북한사람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연출했는데 북한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인줄 알았다는 한 농민 아저씨의 말이 무색하게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친근감까지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11시가 넘어서야 막을 내렸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왠지 통일이 눈앞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하는 밤이다.

2001-08-06 17:04:00 ⓒ 2001 유뉴스
부산대 이진송기자 99sej@hanmail.net

# 강한 넝쿨처럼 우리 통일해요!

## 615공동선언 실현위한 수원지역 통일행사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수원지역 청년·학생 추진위원회 8월 결의대회 및 실천단 발대식이 지난 5일(일) 수원 남문 중앙극장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경기남부총련 지역통일선봉대(지역통선대) 30여명의 학생들과 청학추위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수원시민과 함께 통일한마당을 열어나가는 의미와 기간 선언 운동 및 청학추위 활동을 총화하고 8월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열렸다.

수원지역 청년, 학생들은 오후 4시부터 남문 곳곳에서 선전전과 거리전을 진행했다. 거리전에는 ≪통일방안 관련한 문답풀이≫, ≪통일그림 그리기≫, ≪양민학살≫ 등으로 이뤄졌으며, 한편 수원시 통일한마당 행사준비위원회(행사위 : 우리민족끼리 힘 합쳐 통일합시다)의 마스코트인 통돌이, 통순이의 유인물 나눠주기는 수원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약하고 작은... 하지만 강한 넝쿨처럼 우리 통일해요≫라는 한 초등학생의 통일그림에 지나가는 수원시민들이 발길을 멈췄다.

수원역-남문-북문-남문을 2시간동안 경찰 순찰자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전거를 통해 시민들을 만난 지역통선대 대원들은 6시가 넘어서야 결의대회 장소에 도착을 했으며, 6·15창작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몸짓과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수원지역청학추위 최석진 상임공동대표(아주대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고정호상임공동대표(수원KYC)의 인사말이 있었다.

박우석수원행사위 상임대표는 ≪50년이 넘도록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마음으로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며 하나가 되는 통일을 펼쳐나겠다≫고 청학추위와 실천단, 지역통선대들에게 격려했다.

이후 피성엽통일사랑청년회 회장이 기간 청학추위 활동을 총화했으며, 정치연설 첫 번째는 류수현서울농대회장이 ≪6.16 공동선언 실천하여 거족적인 2001 민족공동행사 치러내자!≫라는 주제로 연설했으며, 두 번째는 이동록광교청년동우회 준비위원장이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하라≫는 내용과 함께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으로는 7월 29일부터 경기남부지역을 돌아다니며 통일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지역통일선봉대 이동엽대장의 활동상황 총화가 있었다.

이번 민족공동행사의 주제곡인 ≪경의선 타고≫와 ≪화해로 평화로 세계로≫의 노래와 몸짓이 6.15 창작단과 함께 실천단 발대식의 문을 열었으며, 영화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수원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승재학생대표(경기대)와 이용욱수원교회청년회 대표의 결의발언과 마지막 결의문 낭독으로 8월 결의대회 및 실천단 발대식은 끝이 났다.

이후 수원지역 청학추위와 지역통선대는 8일(수) 장안구·팔달구 통일한마당 ≪통일을 만드는 이웃들의 2001 통일한마당≫과 11일(토) 수원시 통일한마당을 수원시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경기대 이현정기자 hakbo79@hanmail.net
2001-08-06 11:31:00 ⓒ 2001 유뉴스

# 통일대행진단

## 2장의 티셔츠와 14대의 관광버스
## 통일대행진단 31일 발대식…615선언 이행 전국홍보

≪올해 통선대 동지들에게는 항상 시민들에게 깔끔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티셔츠를 2장 준비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진다. 곧이어 ≪여러분들을 태우고 갈 14대의 관광버스가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갈 듯한 함성과 환호. 정말 세상 좋아졌구나 서로에게 즐거이 되묻고 확인하는 모습.

보름이라는 짧지 않은 일정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통일의 전령사가 될 그들이 31일 연세대학교에서 경험했던 발대식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통일선봉대(통선대)≫ 지금은 ≪통일대행진단≫이라 불리는...(그러나 아직도 ≪통선대≫가 더 친숙하고 편한 사람들이다.)

과거 엄혹한(?) 시절에 통선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번 행진단의 ≪널널함≫의 증거로 들이댈지 모르는 두장의 티셔츠와 14대의 관광버스는 어쩌면 이번 통일대행진단이 과거 통선대와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를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인지도 모른다.






이번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대행진단≫ 총단장을 맡은 일흔 아홉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통일대행진단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라며 한마디로 이번 행진단의 목표와 역할을 규정했다. 다시 말해 작년 남북 두 정상이 만나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알려내고 그것의 지지이행을 전 국민들과 합의해나가는 것이 이번 통일대행진단의 목표이자 주어진 임무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통일대행진단은 소속부터 범민련이나 통일연대를 초월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며 활동방식도 과거 선도적이고 전투적이었던 방식에서 탈피해 14대의 관광버스가 말해주듯 정치적, 물질적으로 보장된 객관 여건속에서 가가호호 방문, 퍼포먼스, 연극과 노래 등의 문예활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대행진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문예단이 강화되고 독자적인 ≪여성≫ 통일대행진단이 최초로 결성되는 등 내부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대행진단은 6.15공동선언실현단과 민족대단결단으로 나뉘어 8월 1일부터 진주와 목포에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에서도 광범위한 지역 통일선봉대를 꾸려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통일운동의 정형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보름동안 우리가 만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만나 6.15선언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라는 한양원총단장의 말처럼 ≪좋아진 정세≫를 주동적이고 그동안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된 통일대행진단. 그러나 과거 ≪철의전사≫라 불리던 통일선봉대의 이악스러움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무장한 창조력이 있는 그들 ≪청년≫이기에 그리 어려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 ≪땀이 베인 짠밥드려 죄송≫

## 전주교도소 방문 등



≪너무도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고 떠납니다≫

오늘 아침(6일) 원광대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통일대행진단 환송대회에서 문재룡(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단장은 주름진 손을 흔들며 전북지역 통일선봉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단장의 전북지역 통일일꾼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는 여느 지역과는 달랐다. 통일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대학생들이 97년 이후 한총련을 대부분 탈퇴해, 전북지역 통일운동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전북지역은 85개의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통일연대≫를 결성하는 등 통일운동 열기가 예년과는 비할 바 없이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전북지역에서는 40여명의 통일실천단이 8월15일 까지 지역 통일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40명은 615통일대행진단이 전북지역을 방문해 떠나는 날까지 이틀동안 250명의 밥을 커다란 솥에다 손수 짓어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2박 3일동안 지내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전북지역 통선대들의 땀이 배인 짠밥을 드려서 동지들에게 죄송합니다≫ 천승훈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의 겸손한 인사가 끝나자 문재룡 단장은 통일대행진단의 모자를 하나하나 전북지역 통일선봉대의 머리에 씌워주며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조국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하늘에서는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려는 듯 단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전주교도소 앞은 통일대행진단의 진입을 막는 전투경찰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외쳐대는 학생들의 함성소리로 시끌벅적 했다.

광주교도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교도소 항의방문.

통일대행진단 측에서는 이성우, 김대원양심수와의 집단 면담을 교도소 측에 요구했고, 교도소측은 6명(통일연대 한상렬상임대표, 통일대행진단 문재룡 서군단장 등)만 면담을 허용했다.

밖의 상황을 주시하는 교도관,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서있는 전경버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히 청소된 거리와 작지만 아담한 화원이 지나고 교도소건물 한켠에 마련된 면담실이 나왔다.

≪끼익≫

문이 열리며 99년 방북대표였던 이성우씨가 들어왔다.

≪그 동안 잘 있었나≫ 어느새 일어나 이씨를 끌어안는 문재룡 단장.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네≫, ≪여름이라 덥고 해서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살아온 이야기에서부터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올해 8.15때 평양에서 민족공동행사가 열린다는 말에 이씨는 즉석에서 ≪가자 평양으로, 오시라 서울로≫를 외친다. 이에 면담자들도 다 같이 따라한다.

짧은 만남 후의 긴 헤어짐의 시간. ≪조국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고 말하는 문재룡단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있었다.

## 여성대원들, 교도소 철문향해 돌진

≪와≫ 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행진단 여학생들이 교도소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비오듯 흐르는 땀방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문에 다닥다닥 매달려 연신 ≪으쌰 으쌰≫를 외쳐댔다. 그들이 교도소 철문을 향해 돌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일 범청학련 통일대행진단 민족대단결단과 남총련 학생들은 광주교도소로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범민련 방북대표 나창순씨와 한총련 방북대표 황혜로씨 등 5명의 양심수를 면담하기 위해서다.

통일대행진단 측에서는 5명의 양심수와의 면담을 요청해 50여명의 면담자가 양심수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 50여명의 면담자는 통일대행진단의 뜨거운 환호 속에 동지가를 부르며 면담실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가? 면담자들이 교도소 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광≫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혀버렸다. 교도소 측에서는 법적인 문제 등을 운운하며 면담자들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면담투쟁 성사하라≫를 외치며 교도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교도소 측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철문을 열기 위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의 필사적인 문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쟁속에서 교도소 측과의 재합의를 통해 오후 2시경 20여명으로 구성된 면담자가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 양심수와 면담을 가졌다.

양심수들과 면담자들은 현재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는 이야기, 건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사상 처음으로(?) 감옥안에서 양심수와 함께 한총련 진군가를 불렀다.







# 군산미군기지 항의 방문

**≪내 신발 내놔~이놈들아≫**




나온 무대뽀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각목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마지막 한마디. ≪머리박어!!≫

6·15 공동선언을 실천을 위한 2001년 북구인 통일대축전≫이 지난 5일(토) 북구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 자리는 이북여인과 남한청년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연극과 영상을 통한 6.15공동선언 해설, 아름나라 어린이 예술단의 공연 등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민족임을 느낄 수 있는 연극을 중심으로 민족고유의 노래를 들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 분단의 아픔을 표현하는 연극을 보고 행사를 바라보던 주민 서양금(47)씨는 ≪저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되야죠.≫라며 ≪아이들과도 점차 진지한 통일이야기도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번 통일대축전을 앞두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북한 아이들에게≫ 라는 주제로 통일백일장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박지훈(12) 어린이는 ≪삼팔선이 얼른 없어져서 북한 아이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다니며 놀고 싶어요.≫라고 수상소감을 말한다.

삼삼오오 모여서 다과를 즐기며 행사를 보는 가족, 촛불을 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가족 등 이번 행사는 특히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몰려와 아이들과 함께 보는 통일교육의 장이 됐다. 특히 행사장 안에 뿐만 아니라 주변 잔디밭까지 둘러앉아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는 듯 연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아이들부터 할아버지까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대운동장을 따라 뿌연 먼지를 날리며 강강술래놀이로 끝을 맺었다.

전투경찰들의 방패에 매달리며 악쓰고 쥐어뜯는 건 건장한 남학생만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적어도 오늘만은 절대 아니었다. 반미여성단 단원들은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한다. 여성이라고 다 같은 여성은 아니다. 특히 오늘 미군기지를 방문한 반미여성단들은 더 이상 여성이 아니었다. 여전사(?)를 보는 듯 했다. 특히 전투경찰의 눈빛에서는 남학생에게서 느끼는 공포감과는 또 다른 공포감을 느끼는 듯 했다.

통일대행진단은 지난 4일(토)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느껴지는 황량함과 삭막함은 ≪주한미군철거가≫를 부르는 통일행진단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주한미군 기지 앞에 들어서자 그들을 맞이해 주는 건 역시나 전투경찰들이었다.

간단한 환영대회를 마치고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를 치르기 위해 미군기지 주위로 들어가려 했으나 전투경찰이 막아나서는 바람에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주민 김옥자(55)씨는 ≪미군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끼리 왜 저러는지…휴전만 안했어도 1등 국가는 못돼도 다른 나라 눈치 안보면서 살수 있을텐데…쯧쯧≫라며 같은 청년끼리의 충돌을 아쉬워한다.

실상 통일대행진단 학생들도 마음 아프기도 마찬가지이다. 한 학생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발 비켜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 ≪우리도 전경들하고 이러는 거 싫어요. 하지만 정작 주인공들은 뒤로 빠져있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라는 것이 통일대행진단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때 한 여학생이 소리를 꽥 지른다. ≪신발내놔 이놈들아~≫ 라며 전경들에게 단신으로 다가가서 손가락질을 해댄다. 하도 소리 지르는 바람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여학생을 응원하는 남학생들의 목소리에 눌린다. ≪신발내놔~신발내놔~신발내놔≫ 여학생의 대담함에 놀랬는지 전경들끼리 웅성거리더니 결국엔 찾아서 내줬다. 학생들의 함성소리와 함께. 이윽고 광주 북구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통일대행진단은 광주로 향했다.

≪반통일 세력들아 머리박어!≫

미국을 상징하는 ≪MD 미사일≫을 들고 추악한 가면을 쓴 한 남자가 무대를 휘젓고 있다. 그 주위로 조금 덜 추악하게 생긴 가면을 쓰고 ≪이회창≫과 ≪조선일보≫ 라고 쓰인 망나니 칼을 든 두명의 사람이 ≪MD 미사일≫을 보호한다. 갑자기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 한나라당 ≪착해졌다네(?)≫



이게 뭔 소린가 하니? 광주 교도소 황혜로대표 접견을 마치고 반통일 수구세력 ≪정당 그 이하의 정당≫인 한나라당까지 거리행보와 선전전을 펼친 통일대행진단의 항의 서한을 받고, ≪앞으로 저희도 통일을 위해 일조 할 것이다≫라는 한나라당의 반성 어린 답변을 받아낸 사건이다. 거물급 인사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직원만이 남은 상태에서의 위기모면이라고 치부해도 통일대행진단의 힘은 실로 대단했고 놀라웠다. 광주지역의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번 한나라당 항의서한 방문은 이제 대세가 기울고 있는 반통일 세력의 최후를 보는 듯했다.

≪으쌰! 으쌰!≫ 밀고 밀리고 실갱이가 벌어졌다. 맨몸으로 방패를 막는 통일대행진단! 하지만 한나라당의 못된 짓을 생각하면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양쪽 대열이 정비된 후 잠시 소강상태!

문재룡 서군총단장 외 3명으로 구성된 항의서한 전달대표가 앞으로 나간 것이 벌써 10분이 지났다. ≪너희들은 에미 애비도 없냐? 어르신이 나가신지 벌써 10분이 지났다. 5분만 더기다리겠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경찰들이 민중의 힘에 겁이 났을까? 주춤대더니 실무자가 나오고 이내 항의서한 방문을 허락했다. 전달대표들이 한나라당 사옥 안으로 들어간 그 사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진행된 학생 · 경찰 공연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양쪽 모두다 바닥에 편히 앉은 상태에서 먼저 공연을 한 쪽은 역시 학생! 새내기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이후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한마디 ≪방패쇼! 방패쇼! 빠밤빠 밤빠빠 문~예공연≫ 하지만 뻘쭘하게 가만히 있는 경찰쪽 분위기...

성공적인(?) 한나라당 항의서한 전달이 끝나고 통일대행진단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아! 계란 줄테니 더 착해져라≫라는 의미를 담아 계란던지기 의식을 진행하였다.

# 문예로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린 ≪심야 정리집회≫




한 남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오른팔을 위로 힘차게 뻗으며 외친다. ≪6 · 15 공동선언 이행하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완수하자!≫ 이때 지나가던 남자가 중얼거린다. ≪벌써 조국통일 됐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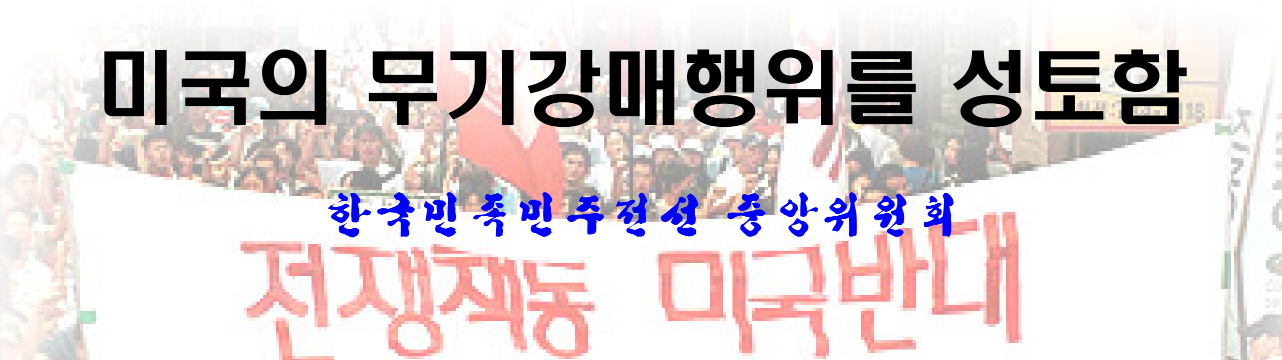
순간 학생들의 허무한(?) 웃음소리가 조선대학교에 퍼진다. 새벽 1시경 시작된 총화대회에서 선보인 서총련의 허무개그다. 아침부터 시작된 광주교도소와 한나라당 항의방문, 광주 시내에서의 거점 선전전. 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생활한 그들이기에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건만 졸음으로 인해 고개를 떨구고 있던 학생들이 서총련의 허무개그 한방으로 이내 얼굴 가득 한아름의 웃음을 지으며 환호한다.

≪빠빰빠빰빰 문~예공연≫ 또 다시 시작된 서총련의 허무개그. 허무개그 하나 하나마다 통일대행진단은 환호로써 응답한다.

이어지는 경인총련의 썰렁한 문예공연. 학생들은 야유를 보내면서도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이 역력하다. 반미여성회의 건강체조 순서에는 모두 일어나 하나라도 놓치기 아쉬운 듯 어설픈 동작으로 따라하느라 분주하다.

급속히 줄어든 경찰과의 마찰이나 한층 강화된 가가호호 방문 등 급격하게 완화된(?) 정세 속에서 활동방식에서 약간의 혼란을 느껴야했던 통일대행진단은 오늘의 힘찬 투쟁속에서 진한 땀냄새만큼이나 강한 웃음과 통일의 선봉부대다운 활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2001-08-04 12:24:00ⓒ 2001 유뉴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swpress1@hanmail.net




#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성토함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식민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강매행위가 날로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 위협을 떠들며 한국이 저들의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을 강박하며 우리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 고혈을 짜내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이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울분을 안고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단죄하여 이 성토문을 발표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에 의해 반세기이상이나 민족분단의 고통을 겪어왔을 뿐아니라 동서대결의 일선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강요당하며 미국무기장사군들의 치부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과 북미공동커뮤니케가 발표되자 이 땅에도 긴장완화와 평화가 정착되고 미국무기장사꾼들의 횡포가 가셔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국민에게는 더욱 전율할 악몽같은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새로 집권한 미국부시정권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판로난, 경영난에 직면한 미군산복합체의 숨구멍을 열어주고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이북을 걸고 이땅에 신냉전의 기류를 몰아왔다.

그들은 이북을 자유의 적,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북의 군사적 위협설을 유포시키는 한편 한국에 미국무기구매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한국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10조원에 달하는 외국무기도입의 상대를 독점해 돈벌이를 톡톡히 해보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제무기가 한국을 보호하고 서울을 지켜주기 위한 위엄있는 무기들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그런데 그 위엄있는 무기들이란 과연 어떤 것들인가.

미국이 구매를 강박하는 ≪에프15전투기≫는 지난 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써 한세대 뒤떨어진 것이고 ≪아파치헬기≫는 한반도의 산악지형에 맞지 않아 성능시비에 걸린 것이며 ≪패트리어트미사일≫은 이미 폐기품으로 낙인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등치고 간빼먹는 날강도 행위가 아닌가.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는 제 배를 채우기 위한 또하나의 식민지약탈행위이며 한반도에서 정세를 격화시켜 전쟁불집을 터뜨린 다음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비열한 전쟁도발행위이다.

미제는 한반도야 초도화되건 말건 우리 국민이야 죽건 말건 더많은 무기를 팔아 돈만벌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로말미암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국무기장사꾼들의 돈주머니에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격화에 불을 질러놓고 무기를 팔아 배를 불릴 때, 이땅의 우리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화약고 위에서 주한미군유지비에 뜯기우고 미국제 무기구매비에 뜯기워야 할 처지에 있다.

이 통탄할 사태앞에서 지금 정계, 언론계 등 사회각계에서는 ≪미국무기중독증에 걸린 식민지≫, ≪한국은 미국무기상인들의 천국≫이라는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은 무기강매를 통해 우리 국민의 피땀을 빨아낼뿐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무기시장, 무기식민지로 만들고 국군을 저들의 용병으로, 대포밥으로 써먹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떠드는 한미간의 우방관계의 실상이다.

사실상 한미관계는 미국의 무제한한 침략야망과 그에 따른 강도적 전횡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기만 하는 약육강식의 관계이다. 침략과 약탈을 생리로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한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무참히 희생시키고 있다.

미국부시정권이 한국에 강요하는 무기구매압력책동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기 위한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7천만 온겨레는 가슴부푼 희망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의지에 넘쳐있고 온 세계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을 지지하고 있는때에 이에 역행해 나서는 미국의 파렴치한 무기강매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악마이고 숙적이다.

죽음의 장사로 일확천금을 노린 미국때문에 어제는 6.25전쟁의 참변을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으로 자주통일의 지평이 열린 오늘 또다시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격할 일인가.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미국무기장사꾼들의 치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놈들의 죽음의 장사를 위한 전쟁희생물로 될 수 없다.

이리가 물었던 비계덩어리를 놓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양키승냥이들은 한국이라는 식민지를 스스로 내놓지 않는다.

오직 우리 민족, 온 국민의 강경한 반미투쟁으로써만 미국의 지배와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땅에 전쟁이 없고 분단이 없는 민족자주통일의 새날도 앞당길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각계각층민중은 미제의 범죄적인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자!

미군기지철폐,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더높이 지펴올리고 거세찬 반미항전의 열풍을 일으켜 나가자!

우리 국민은 미국무기장사꾼들의 희생물이 아니며 이땅은 미국의 무기시장이 아니다.

미국은 무기강매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이 땅에서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라!

**주체 90 (2001)년 7월 26일**

**서울**

# 6.15공동선언과 이회창

## 서울에서 사시는 최영학씨의 글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를 커다란 격동에 잠기게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여의 시일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격과 환희는 지금도 여전하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핵으로하는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이다. 7천만 우리 민족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기어이 그것을 실천해 조국통일을 이룩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인류가 격찬하는 6.15공동선언을 시비질하면서 그에 훼방을 놓는 자들이 있다. 한나라당의 총재라고 하는 이회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자이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전부터 줄곧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죄악만을 일삼아왔다. 4.8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 그는 시기상조를 떠들며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고 앙탈을 부렸다. 그러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열렸고 그 결과는 메가톤급의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회창이 약간이라도 부끄러움을 보이고 자기를 반성할줄 알았다. 그런데 이회창은 그러한 창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한술 더떠서 6.15공동선언에 대해 시비질을 해댔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자주선언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철수불가론을, 연방연합에 의한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를 내들었다. 또 6.15공동선언에 평화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억지를 부리는 등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온갖 험담을 다했다.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남북관계를 첨예한 대결상태로 몰아가려는 반통일대결분자로서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일문제를 외세에 매달려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공조, 한미일공조를 염불처럼 외웠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떠들었다. 미군은 반세기이상이나 이땅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이회창이 겨레의 뜨거운 자주통일열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이회창은 우리 민중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연방연합에 의한 통일방안을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회창이 꿈꾸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선임독재자들이 고창하던 북진통일이나 승공통일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선임자들의 본을 딴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지만 평생 법학을 전공했다는 이회창이 불법무도한 선임독재자들의 호전적이고 반통일적인 언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그 역시 법의 ≪법≫자도 모르는 북침열에 환장한 반통일호전광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들고 나오는 이른바 상호주의도 그렇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때문에 이북에서는 이남에서 수재를 당했을때도 그렇고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민중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그때마다 우리 이남민중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확인하기에 앞서 이북의 뜨거운 혈육의 정에 눈굽을 적셨다. 이북에서는 그처럼 막대한 양의 구제물자를 보내면서도 상호주의를 하자고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회창이 뒷골목의 장사꾼이나 수전노들이 할수 있는 말을 은인이고 동포형제인 북에 대고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초보적인 의리도 예의도덕도 모르는 무례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는 6.15공동선언에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걸고들었다. 6.15공동선언에 긴장완화와 평화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문제이다. 정치인임을 자처하는 이회창이 그런 단순한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이하의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한치앞도 못보는 저능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이회창이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안다. 때문에 그에게 과잉도덕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초보적인 예의쯤은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초보적인 예의도, 어떤 논리적 타당성도 없이 내외가 격찬하는 6.15공동선언을 덮어놓고 부정하고 시비질하며 헐뜯고 있다.

그러면 그 저의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이땅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고 미국의 등에 업혀 대권욕을 이뤄보려는데 있다.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 민중을 파쇼독재의 사슬에 더욱 칭칭 감아놓으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남북대결을 극대화해서 우리 민족을 미국의 전쟁희생물로 만들려하는 것이 이회창의 속셈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고 남북사이의 대화와 화해,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민중이 파쇼와 독재가 없는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대권욕에만 환장한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자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겨야 할 것이다.

네, ≪6.15공동선언과 이회창≫ 최영학씨의 글, 임기수씨 보내드렸습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행렬은 제 갈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회창과 같은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역적이 겨레의 통일의지를 결코 막을수 없는 겁니다.

구국의 소리 6월 3일~5일



#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매장하자!

##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재야정치인 이세창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역사의 부름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 통일성업에 이바지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오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정치인들이 지닌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 조국통일이 민족의 운명, 생명에 관한 문제일진대 통일을 떠나 어떻게 정치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반민족적, 빈통일적 궤도로만 질주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회창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언행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는 것뿐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민족공동의 자주통일 선언이다. 그러나 이회창은 6월선언발표후 오늘까지 줄곧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고 민족공조를 반대하며 외세와의 공조를 역설하는 것으로써 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래도 한개 공당을 책임진 당수라는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이회창은 차라리 ≪한나라당≫의 이름을 통일을 반대하는 당이라는 그 성격에 맞게 ≪두나라당≫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회창에게 충고한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일진대 7천만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의 공적으로 규탄받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






## 쇠주먹으로 징벌하리

울산 노동자 조일명

지금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 모두는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거세찬 흐름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인간추물들이 있다.

그 몇안되는 반통일분자들의 괴수는 바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6.15공동선언을 헐뜯고 그 이행에 제동을 거는 속통 꼬부라진 소리만을 해왔다.

그는 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을 두고 이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외세배격주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동선언이행의 일환으로 경의선철도부설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해제하자 이것은 이북의 남침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같다면서 공동선언발표이후 ≪주적≫개념이 점점 없어지는데 여전히 우리의 ≪주적≫은 이북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미국제무기를 구매하는데 80억달러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밀 때에는 말한마디 없다가 남북경제협력교류를 위해 얼마 안되는 돈을 쓰는데 대해서는 이북에 퍼주기식이라고 하면서 상호주의를 운운하기도 했다.

심지어 화해와 협력, 교류의 대상인 이북의 체제까지 비난하며 헐뜯는 행위도 해댔는데 이것은 반북, 반통일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이런 자가 야당총재자리에 그냥 있는 한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없고 남북사이에 대화는 물론 화해와 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는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어 우리 민족이 그 희생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아니 우리 민족의 명부에서 당장 제거해야 한다.

만일 이회창이 계속 반통일, 반민족적인 언동을 하며 못되게 놀면 우리 노동자들은 무쇠주먹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구국전선(www.ndfsk.dyn.to)

# 한나라당이 남북관계개선에 역행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나라당은 1일에 있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북을 일방적으로 지원만하는 정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이북은 남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최신형무기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느니 평화를 위한 군축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상호주의를 제창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현시기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의 화해와 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또하나의 반통일적인 망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웃간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입니다. 이로부터 이북은 지난 84년 우리가 대수재를 당했을때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5만석의 옥백미와 50만미터의 고급천, 10만톤의 시멘트 등 국제적십자구제운동사상 처음으로 되는 엄청난 양의 구호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때 이북의 지성어린 구호물자를 받아안고 북녘동포들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가슴 뜨겁게 느꼈으며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민족의 정을 다시한번 절감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북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남아돌아가서 보내준것도 아니며 또 그 무슨 댓가를 요구한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지원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며 각방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으니 이야말로 의리도 없고 동포애의 정도 모르는 저열한 족속들의 비열한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건 한나라당이 이북이 지원받은 돈으로 신형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건데요, 이거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군비증강과 신형무기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북이 아니라 이남 당국자들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후에만도 이땅에서 그 전해보다 6.5%나 증가한 15조3,754억원의 국방예산이 발표되고 7천톤급 이지스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육군차세대공격헬기, 무인정찰기, 차기유도기 등을 도입하기로 한 ≪2001~2005년도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된 것은 물론 그것이 이미 실행단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10조2천억원어치의 최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기로하고 미국으로부터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자료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사실을 전변하며 대북지원문제를 걸고든 것은 한나라당이 남북화해와 관계개선을 파탄시키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사업과 지원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건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상호주의와 군사문제까지 거들며 이를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분열과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반통일책동이 이회창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건 구태여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회창은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이와같은 논조를 계속 펴오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반사실은 이회창을 두목으로 하는 한나라당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금의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은 한나라당의 반민족반통일적 정체를 똑바로 가려보고 그들의 반북반통일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 한 · 일 교사, 오욕의 역사 치유한다

## 日쿠마모토 · 전교조 충남지부, ≪왜곡교과서 불채택≫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한 · 일 양국간 외교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쿠마모토현 시민단체 소속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등 현장교사들이 방한해 전교조 충남지부 교사들과 함께,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최후통첩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악된 일본 역사교과서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왜곡교과서 채택 여부를 두고 양국의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현지 교사들이 방한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방문단은 일본 쿠마모토현 내에 있는 시민단체인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회≫ 산하 교육분과 회원들.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지방의원, 대학원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단장 호리 코오타로 쿠마모토대학 교육학부 교수 · 47)은 지난 2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남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사방문단은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 사적지, 동학혁명기념관, 서울서대문형무소 등을 방문하는가 하면 전교조 충남지부 교사들과 함께 일본 침략사에 대한 토론회를 벌이는 등 한 · 일 양국간 교사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호리 코오타로 단장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공동대응 해왔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왜곡교과서 채택 마지막 시점인 오는 15일까지 일본 내에서 적극적인 불채택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근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일정 동안 일본 교사 방문단에게 일본 침략사에 대한 시디롬과 자료를 건네주었다≫며 ≪앞으로 공동수업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들이 일본 내에서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을 벌이는 데 지속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교사방문단을 파견한 쿠마모토현민회는 현 내 100여 개 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등에 직접 교과서 불채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내고 ≪교과서 네트 쿠마모토≫를 발족시키는 등 일본 내에서도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인터뷰**

#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 진정한 우호란 없다

쿠마모토현민회 야스다 마사키(52 · 세키 제3소학교) 교사

이번 방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일본은 오는 15일까지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한 공식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불채택운동에 대한 일본 내 지식인들의 열기도 서서히 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 · 일 양국의 교사들이 만나 역사인식을 바르게 하는 기회를 가지고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을 계기로 양국간의 평화우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방문하게 됐다.≫

쿠마모토현은 특히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일찍부터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현 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등을 방문해 불채택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고 문제의 교과서에 대한 자체 연구사업을 벌여 쿠마모토현과 관련한 4개 항목의 오류를 지적해 이 가운데 2개 항목을 시정하게 했다.

이같은 활동의 결과로 ≪교과서 네트 쿠마모토≫를 발족했고 7월 말 현재까지 왜곡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채택 발표 시점인 오는 15일까지 한 곳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단체의 역량으로 개악저지와 채택저지를 벌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곡절도 있었다. 문제의 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청월을 벌이는 과정에서 쿠마모토현의회의 자민당 의원은 ≪충남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포기해도 좋다≫는 극단의 망언을 서슴지않기도 했다.

또한 쿠마모토를 방문한 일본관료들이 ≪대동아전쟁≫을 읊조리며 신사참배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고 자위대 군사훈련장을 방문해 ≪돌격≫의 구호를 외치는 것을 듣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소감을 말해달라.

≪민간 차원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공유 없이는 진정한 우호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방한 일정 동안 양국 교사들이 함께 벌였던 토론회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으로 돌아가 왜곡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막바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자치단체 또한 왜곡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해 마지막 행정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통역: 황석균(충남 대건고) 교사, 최석영(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구혜영기자 koohy@njoyschool.net
2001-08-06 13:56:00




# 민가협,
# 과천서 감옥시위 전개
## ≪차라리 내가 갇히겠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애절해 지고 분노로 가득 차고 있다.

2일 오후 2시 장마가 끝난 8월의 여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 어머니들의 감옥시위가 있었다.

매주 목요일이면 탑골공원을 차지하던 민가협 어머니들의 집회는 개인별 감옥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들고, 제388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법무부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해마다 진행되던 8.15광복절특사를 올해는 법무부의 건의에 의해 실시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표에 따라 장소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옮겨 진행되었다.

이날 김정숙(전 민가협상임의장)씨는 법무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낭독을 통해 ≪최근 법무부의 광복절특사를 하지 말라는 건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양심수의 사면을 건의하고 양심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도리어 양심수 사면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케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씨는 가석방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우선해서 매월 실시되는 가석방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온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없지 않으나,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일반 가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179명이고 이들은 민주화, 통일, 생존권을 위해 애쓰다 구속된 학생, 노동자, 민주화운동가이며,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서 있는 지금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특히 지금 병으로 앓고 있는 박경순, 나창순씨 등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10여명이 함께 하였는데 이들은 KEEP(Korea Exposure Education Program)를 통해 한국의 인권과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지난 1일 방한한 교포들로써, 광주 망월동묘역을 다녀왔으며 나주에서의 농촌활동과 나눔의 집 등을 방문하고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날 집회에 함께 참석한 김혜란(UCLA 정치학 대학원생)씨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에서도 NSL (National Security Law,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사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하며 민가협 어머니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인환기자 ihoh@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03]




# 대구서도 국보법 폐지촉구

대경연합을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구여성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총련 등에 대한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국통일의 구심 역할을 하는 한총련 대의원들은 수배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나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한총련에 대해서만 보안법과 이적 규정을 운운하며 관계자들을 수배.연행.구속하는 것은 억지이다≫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 한총련 합법화 쟁취투쟁

시민사회단체는 8월 3일을 ≪한총련 합법화 쟁취의 날≫로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 쟁취의 날≫로 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9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반대와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촉구대회≫를 가졌다.

오종렬(전국연합)상임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총련은 어려움을 낙으로 알고 이겨나가는 조국의 미래상≫이라고 독려하고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종렬상임의장은 ≪대법원 판결은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 선배 그리고 국민대중이 이 굴레를 벗어버리도록 하자≫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총련 이적규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보안법도 반드시 철회시켜 우리 모두 손 맞잡고 아름다운 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서총련 통일선봉대 대장인 김상률(서울대 사범대 학생회)회장은 ≪얼마 전 청와대가 8.15 특별사면 복권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민족공동행사가 치러지는 경사스러운 날인 8월 15일까지도 통일운동을 한 학생들을 가둬두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의 힘찬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와 양심수를 석방, 그리고 한총련의 합법성을 쟁취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촉구대회는 풀총과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한총련 활동보장≫이라는 문구가 붙은 우산 등이 등장하고 중간중간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문화공연이 있어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합법화쟁취≫를 위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한편, 검찰청 앞에서 촉구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회장과 시민단체 대표자, 그리고 한총련 대의원 2명은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검찰총장 면담을 재 신청했다.

원래 공문을 통해 오늘 오후 3시 검찰총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검찰청측에서 인터넷상으로 ≪사건처리에 있어서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오늘 검찰총장 면담은 일정조절이 안돼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왔다.

이에 주최측은 면담일을 8월 8일로 조정한 내용의 면담요청서를 재 접수하게 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과 한총련 합법화 쟁취의 날 선포를 기점으로 이후 한총련 합법화 투쟁은 물론 8.15 대사면 요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그 투쟁양상도 보다 폭넓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미기자 jmsong@tongilnews.com

# ≪8.15 특별사면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자 148명, 양심수 179명의 8.15 특별사면을 정부에 촉구했다.

4일 오후 4시 명동성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명동성당 농성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4일 현재 농성 444일째를 맞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단이 매주 진행하는 토요 캠페인으로,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의 민족화합대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명동성당 농성단 진재영(수배 8년째)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촉구대회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곽인석회원은 ≪8.15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얼마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올해 광복절 특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 이 발표가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말해왔던 현 정권의 주장과도 맞지 않으며 아직도 냉전과 공안시각에서 양심수를 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지난 6월 26일 ≪서울지역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9명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

가족들중 김기수(구속된 최미선씨 남편)씨는 구속된 부인 최미선씨가 감옥에서 17개월 된 딸 규민에게 보내온 편지를 낭독해 대회장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이어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장은 ≪다같이 열심히 투쟁해서 이제 존립의 명분을 잃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의 해제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이뤄내자≫며 대회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촉구대회에서는 남측의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실무단이 북측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와의 실무접촉에서, 8.15 ≪2001 민족통일 대축전≫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평양행사에 남측의 대표단 300명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결과가 전해져 참석자들은 환호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대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민족대화합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족대화합을 위해 활동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수배자로, 양심수로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채워지는 현실과 8.15 민족공동행사를 남북이 합의한 시점에도 양심수와 정치수배자 해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촉구대회에 앞서, 명동성당 앞 거리에서는 서총련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과 모의 감옥, 그리고 서명전, 사진전 등을 3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 기자회견문

### 근거 없는 법 적용 남발 중단하고
###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의 활동 자유 보장하라!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의 감격을 되새기며 조국통일의 열기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굴 ≪격동의 8월≫을 설레임 속에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온 겨레가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땅의 대학생들만은 ≪한총련 이적규정≫이라는 구시대적 조항에 발목 잡혀 여전히 ≪수난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 대통령 및 검찰, 경찰 면담요청과 기자회견 등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과 대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를 간곡히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채 9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가 하면, 소위 ≪탈퇴시한≫이라는 것을 못박아 놓고 ≪탈퇴하지 않을 시 수배조치 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정치수배자, 양심수가 늘어나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법이다. 더구나 나라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야 할 죄없는 청년학생들을 수배자, 양심수로 만드는 나라는 결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시대, 우리는 청년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실천활동 자체를 보장하는 문제가 다가올 통일시대의 운명을 가늠 짓는 문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9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조치 반대와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제는 매해 반복되고 있는 공안당국과 청년학생들의 쫓고 쫓기는 싸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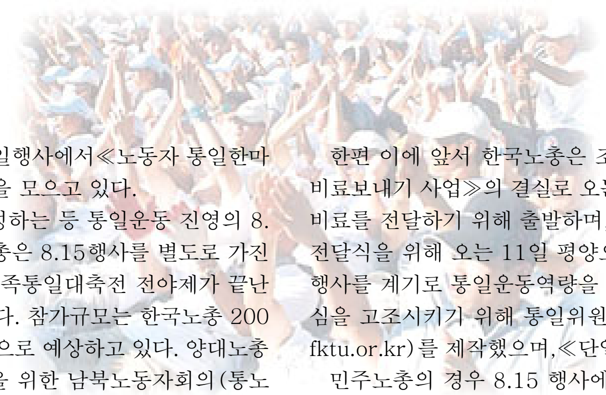
9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대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4백여명의 대의원들을 또다시 수배의 길로 내모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한총련은 지난 4월 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일강령을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남북공동선≫으로 수정했으며, 지난 6월 1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토론회에는 5명의 대표를 합법적으로 방북시키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건국대총학생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기소포기와 경기대총학생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함으로써 한총련에 이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없고 무리한 법적용인지를 스스로 시인했다.

우리는 정치수배자의 90% 이상이 ≪이적규정≫ 의한 조항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을 수배조치하는 것은 수많은 정치수배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년학생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수 차례 경고해왔다. 공안당국은 9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방침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이 진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면 통일에 기여해온 이 땅 대학생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그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1년 8월 3일

민주화운동 가족실천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양심수후원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통일광장 및 장기수, 민주화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농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6.15공동선언실천연대,민주개혁 국민연합, 전대협동우회, 사월혁명회, 김대원후원회

# 양노총, 노동자 통일한마당 개최



양대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8.15 통일행사에서≪노동자 통일한마당≫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간 통일선봉대를 구성하는 등 통일운동 진영의 8.15행사에 적극 결합해왔으나 한국노총은 8.15행사를 별도로 가진 적은 없었다. 노동자 통일한마당은 민족통일대축전 전야제가 끝난 뒤 15일 새벽 1시께 연세대에서 열린다. 참가규모는 한국노총 200명, 민주노총 1,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 3월 북한 직총과≪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통일사업을 함께 해왔는데, 이번 행사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그러나 한국노총은 15일 여의도 LG무대에서 열리는≪6.15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은 민족통일대축전 공동주최측인 민화협이 관변단체라는 이유로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민족통일대축전은 평양에서도 동시에 열리며 양대노총에서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조합원 모금을 통한≪북한동포돕기 비료보내기 사업≫의 결실로 오는 7일 여수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비료를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며, 이남순 위원장 등 5명의 대표단이 전달식을 위해 오는 11일 평양으로 떠난다. 한국노총은 올해 통일행사를 계기로 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통일위원회의 별도 홈페이지(http://tongil.fktu.or.kr)를 제작했으며,≪단일기달기운동≫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8.15 행사에 앞서≪노동자 통일선봉대≫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11박12일동안 활동을 펼 계획이다. 4일 대구에서 노동자 통일선봉대 발족식을 가진 뒤, 전기간동안 연인원 120명 가량이 선봉대원으로 뛰게 된다. 이들은 4일 대구에서 노동자통일선봉대 발족식을 가진 뒤 전국 곳곳의 투쟁사업장을 방문해 MD반대 등 당면한 통일운동 관련 요구들을 선전하고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통일한마당 행사에도 참가한다.

황보연 송은정기자
[매일노동뉴스 08월02일]

# 공동선언 실천 우리 구가 앞장 섭니다!

## 성북지역통일한마당 오는 12일 개최




6. 15 공동선언 실천과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성북지역통일한마당≫이 오는 8월 12일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6. 15 공동선언 실천과 2차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의지를 모아내고, 대중적 통일 분위기 형성으로 지역내 민족의 화해와 평화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됐다.

≪성북지역통일한마당≫은 96년부터 98년까지 지역의 청년, 학생, 지역 시민단체주최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는 더욱 확대된 통일 열망에 부응해 민간단체 뿐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정당별 지구당, 구청 산하 직능 단체를 망라한 범 구(區) 차원의 행사로 진행된다.

본행사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주민 노래자랑, 통일 기원 문화제, ≪6.15 공동선언 실천과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주민 1만인 선언과 민족공동 행사 성북주민 참가단 발족식≫, 대동놀이가 열린다. 특히 통일 기원 문화제는 초청가수 공연과 함께 지역 문예패 공연, 어린이 합창, 청소년 댄스, 어린이 합창, 영상물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는 6.15 공동선언전문 워드 빨리치기 대회, 풍물패 공연, 북한노래 뮤직비디오상영을 비롯한 부문 별 행사가 열린다. 별도의 부대행사에서는 지역단체 홍보 · 후원 박람회, 어린이 통일 백일장, 통일기원 마련 바자회, 바디 페인팅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기타행사로 성북지역 단일기 달기, 통일 염원 성북구민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성북지역 통일한마당≫(www.sbtongil.or.kr)사이트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미혜기자 press104@hanmail.net
2001-08-06

# 한국노총 위원장 등 11일 방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이남순위원장 등 5명이 오는 11일 방북,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10일 요소비료 1천t을 남포항으로 보낼 계획이다.

노총에 따르면 이 위원장 외에도 이정식대외협력본부장, 오문환항운노련위원장, 강성천자동차노련위원장, 도성환공공건설노련위원장 등이 방북하게 된다.

이들은 비료 전달을 계기로 직총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오는 15일 남북 공동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될 경우 이 행사에도 참석한 뒤 18일께 귀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충원기자 2001/08/03

# 대전충남지역 학생운동 대토론회

## 대전충남지역 학생운동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수신 : 한기대총학생회 · 호서대총학생회 · 21세기진보학생연합, 전대기련 충남지부
발신 : 대전연석회의 ·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연락처 : 메일 8ccy@jinbo.net 019 228 6005(충청총련) ·

### 1. 제안배경

무더운 날씨, 엄혹한 정세속에서 대전 지역 학생동지들 안녕하십니까? 기간 대전지역에서 각 학교별로 등록금 인상을 계기로한 교육투쟁과 한통통신 계약직, 리베라호텔, 서산 우주항공 등등의 많은 노동 사업장들의 투쟁,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 과 같은 등등의 투쟁에 있어서 비록 상이한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의 투쟁을 조직할 수 있었고 함께 논의 될 수 있었으나, 실천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2001년 상반기, 아니 반드시 올 1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 학생운동의 동력또한 수년간 계속적인 하락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대중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 간의 논의 또한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직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현실 학생 대중운동의 복원의 경로와 대중운동에 대한 판단 또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대중운동 활성화와 복원의 고민들을 공동의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에게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후퇴를 막고 지역에서부터 전진을 할 수 있는 실천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 조그만 시작이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2. 기간 학생운동단위간의 연대활동에 관해서.

기간 같은 지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무슨 무슨 사업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인식하였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입장이 우리와는 틀린 단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와 상이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학생운동간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의 유의미성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토론회에서 기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위에서나마 의사소통을 시작해 나감으로써, 지역에서 지역 학생운동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함께 지역 민중운동, 노동운동의 활성화 또한 함께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3. 구체적 계획

이러한 지역학생운동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공동 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합니다.

일시 : 8월 20일-25일사이에
(세부사항은 단위 상황 공유후 확정합니다)
장소 : 대전대
내용 : 토론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담겨야할 내용에 대한 논의
토론회 형식과 제안 단위에 대한 논의

각 실무간의 논의를 통해 처음일 수도 있는 지역 학생운동간의 공동토론회를 내실있게 준비합시다.

대전 연석회의 ·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우리도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의 당당한 주력군이다!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농민통일대회는 북과 남의 농민들의 단합된 힘을 크게 과시하였으며 농민들도 로동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당당한 주력군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 공동보도문> 중에서 ≫

벌써 몇 번째 읽는 구절인지 모르겠다. <북남농민통일대회 공동보도문>의 내용 한구절 한구절 모두가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지만 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

당당한 주력군!

이 대목이 나에게 뜻깊게 자리잡는 이유는 아마도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나의 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과 당국의 수입자유화책동으로 농업은 황폐화되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떨어질데로 떨어져 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까지 감행되어서 농업과 농가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은데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값이 급격히 높아져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니 대다수 농민들이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크게 돌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실현의 당당한 주체로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 한 몫을 하고자 전농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농민들의 실제적인 만남을 성사시킨 것은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내 자신이 그 중의 한 성원임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일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지켜보면서 부러움과 시샘을 느끼며 우리 농민들도 한번 본때있게 남북농민통일대회를 성사시키자라는 속다짐을 하며 군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농사일에 바쁘지만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선전도 했다.

이 과정에 남모르는 고심도 많았고 보람도 느꼈다.

어떻게 하면 금강산에 가는 사람이건, 가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농민들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려낼 수 있을까? 등등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는 본의아니게 부부싸움을 일으킨(남편과 아내가 서로 금강산에 가겠다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곤 했다) 주범이 되어 난감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때 보람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의 참가인원수가 사상최대의 규모였다고 하나 우리 농민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작기에 부부싸움이라는 헤프닝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 커다랗게 깨닫게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의미였다.

나는 내자신도 불가능할 것만 같이 여겼던 남북농민들의 실제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자고 선언한 6.15공동선언의 위력과 정당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나는 남과 북, 칠천만 겨레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분단의 장벽을 넘어 실제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5.1절 노동자들의 통일대회와 6.15공동선언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그리고 이번에 남북농민통일대회 등 모두가 6.15공동선언에 의해 마련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나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마을사람들에게 더욱 열심히 선전도 하고 당면해서는 이번 8.15대회때 작년보다 두, 세배되는 사람들과 함께 서울에 가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늘 밤,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왔을까 얼른 마을회관에 가봐야겠다.

2001년 7월 22일 유한무



# 노동자호 통일기관차 힘차게 달린다

구국전선(www.ndfsk.dyn.to) 8월 1일자
노동운동가 최동수

## 기적소리 높이 울린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펄펄 날리며 남북의 노동자가 함께 모는 통일기관차가 종착역을 향해 힘차게 내닫는다.

분단 5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와 6.15민족통일대토론회장에서 몰라보게 성장한 우리 노동자계급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을 안아오신 민족의 영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린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의 눈 앞에는 이제 남북의 노동자가 주력군이 되어 안아 올 통일조국의 아침이 찬연히 비쳐오고 있다.

## 통일의 선봉장으로

우리 노동대중이 민족통일운동의 선봉에 서기까지는 장구한 여정을 거쳐야 했다.

돌아보면 이 땅에서 우리 민중의 조국통일운동은 반세기 넘어 벌어져 왔다. 그 앞장에는 당연히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이고 사회변혁의 영도계급인 우리 노동자들이 서야 했었다. 그것이 시대와 민중의 바램이었다. 그러나 노동대중은 기득권세력의 가혹한 탄압과 교활한 회유기만책동 그리고 자기 성장의 미숙성으로 하여 오랫동안 그에 화답하지 못했다.

노동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자 우리 노동대중은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 왔던가.

8.15광복후 이남 노동대중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뭉쳐 노동해방과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해 미군강점과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였으나 미제와 이승만역도의 야만적인 총칼탄압으로 무참히 좌절됐다.

전후 우리 노동자계급은 저주로운 ≪반공법≫,≪국가보안법≫에 짓눌려 자주통일, 평화통일이라는 말조차 변변히 할 수 없었다.

60년대 4.19항쟁과 70년대 전태일열사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새출발한 노동운동은 80년 광주항쟁과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나 9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주로 생존권투쟁에 머무르고 있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청년학생들과 재야민주세력에 의해 전진해 왔다. 파쇼의 최루탄과 곤봉에 맞아 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연방제통일을 외치며 한치한치 등밀이로 판문점을 향해 전진한 청년학생들, 형장과 철쇄가 기다리지만 분단겨레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자주통일, 연북연공을 주장하며 북행길에 오르고 투쟁의 거리에 나선 재야의 통일애국인사들, 그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통일운동은 소수에서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각계층을 망라한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돼 왔다.

그 속에서 우리 노동운동도 생존권이나 조직력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문제해결에 직접 나서게 됐다.

1995년 민족자주성확보와 민주사회건설,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의 기치를 들고 ≪민주노총≫이 출범의 닻을 올린 이후 우리 노동대중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자체내의 ≪조국통일위원회≫라는 통일운동전담기구를 내오고 자주통일, 연방통일을 주장하며 분단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싸워왔다.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해마다 8.15통일대회도 열었고 서울에서 열리는 8.15범민족대회에도 참가해 통일의 함성을 드높였다. 1999년 8월에는 분단이래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해 통일축제도 펼쳤다. 그래서 분단극복의 주체로 나설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중의 자주통일투쟁의 전열에는 나서지 못한 노동자계급이었다.

그러던 노동자계급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비로소 조국통일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됐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은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불러 일으킨 성스러운 투쟁의 기치였다.

우리 노동대중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있은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에 누구보다 기뻐했고 지지환영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공동선언실현을 시대와 겨레가 노동대중에게 내린 명령으로 새겨 안았다. 그래서 지난해 광복절 때 열린 ≪6.15남북공동선언관철과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한 2000년통일대축제≫장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조국통일 이룩하자!≫고 외치며 통일운동의 선봉에 설 자기의 굳센 의지를 천명했다.

민족 앞에 다진 맹세 그대로 우리 노동대중은 지난 1년간 자주통일투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사업장마다에서 ≪노동자통일선봉대≫가 활동하고 노동자통일운동을 전담하는 전지역적 조직으로서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출현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통일단체결성에도 남먼저 팔을 걷고 나선 노동자들, 그 길에서 우리 노동자가 참가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범국민적인 ≪통일연대≫가 결성돼 민중의 통일운동에 활력을 더해 주었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6.15공동선언의 대원칙아래 통일의 걸림돌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우리 노동대중의 투쟁은 또 얼마나 거세찼던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에서, 노근리 양민학살만행규탄장에서, 미군기지 앞에서, 미대사관 앞에서 우리 노동자계급이 외치는 ≪미군기지철폐≫,≪주한미군철수≫,≪양민학살진상규명≫,≪대북강경정책철회≫,≪미사일방어체제반대≫의 우렁찬 함성은 양키침략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우리 노동대중이 높이 든 투쟁의 깃발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와 같은 연합투쟁단체결성식장들에서도, 각계층 민중을 반정부, 반미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대규모 ≪민중대회≫장들에서도 세차게 펄럭이었다.

외래독점자본의 강도적 경제침탈로 인한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총파업과 집회, 성토와 농성도 해일처럼 일어났다.

지난 1년간처럼 투쟁이 큰 규모로 끊임없이 강도높게 벌어진 때가 없었고 노동자가 자주통일운동의 선봉을 달린 적이 없었다.

분단 55년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질적 도약이 1년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더 이상 통일운동의 ≪위성세력≫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새 세기와 더불어 이 땅 1천 3백만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의 앞자리에 당당히 자리매김했음을 세상에 과시했다.

그렇다. 6.15공동선언이라는 자주통일의 기치가 있어 우리 노동자계급은 통일열차를 이끄는 기관차로서의 중임을 능히 담당하는 통일의 선봉장으로, 주력부대로 우뚝 섰다.

## 단결의 힘으로

단결은 노동대중의 생명이고 노동해방의 천하지대본이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1886년 시카고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서 유래된 메이데이도 국제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성의 날로 기념한다. 노동자계급은 역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고 단결로 승리의 길을 개척해 왔다. 18세기 산업혁명이후 기계파괴운동으로 시작된 노동해방투쟁이 19세기의 독일 실레지아방직공들의 투쟁과 프랑스 리옹폭동, 영국 차티스트운동의 험난한 길을 헤치고 파리콤뮨의 피어린 언덕을 넘어 20세기에 이르러 마침내 러시아사회주의 10월혁명의 승리로 인류사상 첫 노동자계급의 국가를 탄생시킨 것도 단결의 위력이 낳은 결실이다.

노동자가 단결의 무쇠마치를 치켜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 노동대중이 통일의 선봉장으로 되는 길도 단결에 있다.

그래서 양키침략자들과 그 하수인들은 노동자단결을 막기 위해 오만가지 악법과 간교한 이간술책으로 노동운동대열을 분열와해시키려고 광분했다. 특히 당국은 ≪민중노총≫이 출현하자 그와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대 노총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려고 갖은 비열한 짓을 다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권력의 분열이간술책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한국노총≫과의 연대연합을 이루어냈다. 노동법개정투쟁과 구조조정반대투쟁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연대해 권력과 자본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두 노총의 연대공동투쟁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었다.

그나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양대 노총의 연대와 연합은 거의 없었다.

조국통일의 근본밑천인 단결, 그 단결의 대하에 노동운동단체들이 흔연히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다. 조국통일의 길에서 두 노총이 함께 손잡고 한목소리를 낼 날은 과연 언제일까.

양대 노총의 단합은 드디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큰 걸음을 내디디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사이의 불신의 골을 메우고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통일한마당에도, 그 실천을 다짐하는 회합의 자리에도 함께 섰다.

≪민주노총≫부위원장의 5.1절통일대회참가를 막아 나선 ≪국정원≫과 맞서 속초항에서 벌인 6시간의 농성투쟁, 거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따로 없었다. 5.1절노동자통일대회를 기어이 성사시켜 남북노동대중이 통일의 길에서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



는 일념만이 충천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한 일군은 이 광경 앞에서 ≪지난 시기 ≪한국노총≫과의 연대연합은 성사직전에까지 갔다가도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6.15공동선언발표로 서로의 의견상이나 주의주장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기치아래 연합을 실현하게 됐다. 6.15공동선언이 있어 그처럼 어려웠던 이남노동운동단체들의 단합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감격해 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노동자계급의 화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역사적 쾌거를 가져왔다.

지금도 금강산에서 열렸던 5.1절통일대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마냥 부풀어 오른다.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노동자 5.1절통일대회장에 메아리친 남북노동자들의 통일함성은 그대로 6.15금강산민족통일대토론회장에 이어져 겨레의 통일대합창으로 더욱 높아졌다. 그래서 남북의 노동자가 민족통일진군의 강위력한 추진력임을 내외에 과시했다.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이 땅 양대 노총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의 차이를 넘어 북의 노동대중과 힘을 합쳐 거대한 통일역량으로 성큼 발돋음하게 한 단결의 현장이었다.

그 위대한 단결의 기치를 들고 남북의 노동대중은 자주통일의 앞장에서 전진해 왔다.

참으로 우리 노동대중에게 자주통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현장을 안겨주신 통일의 태양 계셔 남북의 노동자계급은 민족통일운동사에 거대한 성공탑을 세웠다.

## 통일의 태양따라

한반도의 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통일의 문을 여는 노동자통일시대, 참으로 가슴 벅차고 자긍심 넘친다.

아득한 영마루에 성큼 올라선 한국노동운동, 단순한 세월의 누적만으로야 어찌 이런 기적이 이뤄질 수 있으랴.

이 경이적인 현실은 통일의 태양 **김정일**영수께서 안아오신 것이다.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기필코 겨레에게 통일조국을 안겨 주시려 불철주야로 헌신해 오신 **김정일**영수.

영수께서는 20세기에 시작된 민족분단의 역사가 21세기에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세기의 교차점 2000년에 친히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셔 통일이정표를 세워 주셨다.

통일대장정에 나선 이남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통일의 지름길을 비쳐주셨다. 한국노동운동이 서야 할 위치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다.

투철한 민족애와 드넓은 도량, 무비의 대용단으로 반세기이상 덧쌓여온 남북간의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일순간에 날려 버리시고 분단 민족의 한을 걷어 낼 역사적인 평양 통일선언을 마련 하신 **김정일**영수의 절세의 위인상에서 우리 노동자계급은 통일을 확신했다. 필승의 자신감을 안고 영수께서 밝혀 주신 통일의 진로따라 투쟁

의 광장에 떨쳐 일어났다.

**김정일**영수께서는 우리 노동자계급에게 남다른 믿음을 안겨주시며 6.15공동선언실현의 앞자리에 세워주셨다.

언제나 노동자계급을 가장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계급이라고, 노동자계급이 없는 주력군의 편성이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없는 변혁의 승리와 통일위업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며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영도계급으로, 조국통일의 핵심세력으로 내세워 주시는 영수, 우리 노동자계급이 그 크나큰 자긍심을 안고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책임지고 떠밀어가는 통일운동의 선봉장으로 거듭 나도록 이끌어 주신 영수의 심혈과 노고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북의 조선노동당창건 55돌 경축행사에 이남의 노동자대표들을 불러주셔 남북민중의 화합과 단결의 정을 두터이 하게 하고 자주통일열망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 주신 영수.

그분께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리도 크셔 6월공동선언발표이후 누구보다 먼저 남북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대토론회도 열게 하셨다. 연대기구도 내오도록 하셨다. 통일대회도 크게 펼치도록 하셨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자긍심과 시대적 사명감을 백배케 해주신 영수이시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와 지난 3월에 분단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노동자계급의 통일연대기구-≪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5.1절에 천지가 들썩하게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들에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단결의 위력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을 짓뭉개 버리고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라는 영수의 믿음과 기대가 진하게 어려있다.

그렇다. 우리 노동자계급을 제일로 믿고 내세워 주시는 **김정일**영수께서 계셔 남북의 노동자계급은 하나로 똘똘 뭉쳐 민족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장을 아로새길 수 있었다.

**김정일**영수께서 노동자계급을 위해 바치시는 무한대의 헌신은 이 땅 노동대중을 조국통일투쟁에로 더욱 활기차게 떠밀어 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한평생 노동자계급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천품을 그대로 이으신 영수.

자신을 근로하는 민중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시는 그분이시다. 그러기에 영수의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노동자계급이 자리잡고 있다.

이북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노동대중을 위해 바치신 **김정일**영수의 그 숭고한 헌신에 대해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으랴.

그 나날에 영수께서 주먹밥으로 때식을 굶때시고 쪽잠으로 밤을 넘기신 적은 그 얼마인가. 나라의 방방곡곡 노동대중을 찾아 걷고 걸으신 길은 몇천 몇만리던가.

그 길에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부흥에로의 일대 도약을 가져오게 한 그 유명한 ≪강계정신≫이 창조됐고 ≪제2천리마대진군≫을 안아 온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가 타올랐다. 이북을 새 세기 정보산업왕국으로 올려 세우기 위한 야심찬 사업에서도 눈부신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북을 다녀 온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계급이 우주산업과 컴퓨터개발 등에서 쌓은 대성공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정상에서 빛을 뿌릴 **김정일**강성대국의 내일을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류가 겪은 고난과 시련을 합친 것보다 더 처절한 시기에 이룩된 승리인 것으로 하여, 그것이 영수의 무비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하여 우리 노동대중에게 와 닿는 의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김정일**영수의 사랑은 그 깊이와 폭의 한계를 모른다.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위에 꽃도 피우실 영수이시다.

노동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영수께서 계셔 이북은 오늘 노동자≪천국≫으로 이남노동자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모으고 있다.

**김정일**영수의 사랑의 햇빛은 이 땅 노동자계급에게도 뜨겁게 비쳐 온다.

떨어져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의 다심한 심정으로 식민지와 자본의 2중사슬에 얽매어 고통받는 이 땅 노동자들을 위해 늘 마음을 쓰시는 영수이시다.

이남의 노동자들이 한몸 불태워 노동해방의 제단에 바쳤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IMF의 한파로 실업대군이 거리를 메우고 ≪IMF형 고아≫, ≪IMF형 자살자≫가 늘어난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셔 끼니를 번지시고 밤잠을 못이루시는 영수이시다.

영수께서 남녘노동대중의 생존권과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들에 연대성을 보내도록 하시고 투쟁의 길에서 희생된 열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뜨거운 사랑은 그대로 우리 노동자계급의 힘의 원천이었고 용기의 샘이었다.

몇년전 인터네트 홈페이지에 ≪**김정일**총비서이시여, 이남노동자들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소서!≫라는 글이 실려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실을 어찌 우연타 하랴.

그것은 노동대중의 태양이신 **김정일**영수를 모시고 통일조국에 살려는 이남노동자계급 모두의 간절한 열망의 분출이었다.

정녕 그 열망 뜨겁게 불타기에 이남노동대중은 자본과 권력의 횡포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노동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억척같이 싸워왔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통일의 새날을 여는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 성큼 나섰던 것이다.

**김정일**영수께서 안아오실 통일조국에 안겨 살려는 우리 노동대중의 의지와 신념은 금강석처럼 굳고 그 투지는 하늘을 찌른다.

* * *

통일의 태양 **김정일**영수를 모시고 자주적인 연방통일조국을 향해 가는 남북노동자들의 힘찬 대행진에 천지가 진동하고 있다. 그 거세찬 전진에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물거품처럼 흩날려지고 있다.

그 무엇으로써도 자주통일로 흐르는 이 역사의 대하를 거스를 수 없다.

승리는 우리 노동자의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여, 통일의 태양따라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 투쟁 앞으로!



# 이회창의 죄행 파해쳐본다

지금 온 겨레가 통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사업이 잘되어서 통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총재라고 하는 이회창은 겨레의 이같은 통일열망에 역행해서 남북간의 통일분위기가 진전되지 못하도록 온갖 못된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자를 그냥 둔다면 남북간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대립의 관계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이런 반통일역적을 두고서는 통일을 바랄수가 없습니다. 송이밭의 독버섯과 같은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역적은 제때에 제거해버려야 하는거죠.

그럼 이시간에는 먼저 이회창의 죄악중에서 6.15남북공동선언발표를 전후한 시기의 죄행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일씨 김현규씨 두분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들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요즘 국민각계는 물론 정계에서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강도높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온 겨레가 염원하는 통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집권욕에만 혈안이 되어 돌아치고 있는 인간추물에 대한 당연한 평가라 하겠는데요. 그럼 이회창이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지 그가 저지른 죄행을 놓고, 주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구체적으로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전후시기에 저지른 죄상을 가지고 얘기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셨는데요. 어느 분 먼저좀 말씀해주시죠.

**오 일** : 금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정가와 사회각계에서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어요. 그 골자를 보면 이회창같은 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도 이뤄질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는 한반도에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제2의 6.25전쟁까지도 터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회창을 정계에서 아예 제거해버려야지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 국민이 더욱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김현규** : 네, 매우 정당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회창이 놀아나는 꼴을 보면 한마디로 이성을 잃은 자의 무분별한 행태라할까, 어찌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린자의 추태 그대로인데요. 이런자가 정치를 한답시고 정계에 나선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죠. 그러니까 경향각지에서 반이회창기운이 높은 건 당연한 기류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의 죄행가운데서 우선 손꼽아야 할것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이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거라고 보는데요. 죄악이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아시는것처럼 최근 한반도정세,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예전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일련의 변화들이 이룩되었죠. 특히 6.15남북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남북간에는 불신, 질시하던 구시대가 아니라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새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오 일** : 그렇죠. 되돌아보면 남북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와 그 이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여간 기뻐하지 않죠. 한마디로 남북공동선언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면서 그 이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것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회창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회창패거리들은 역사적인 4.8남북합의서발표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충천하는 통일열기에 역행해 못된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에 가야 얻을게 없다면서 애당초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을 달가와하지 않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는 공동선언에 기대와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느니, 대북경제제재를 해야 한다느니, 북도 단호히 비판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입삐뚤어진 소리를 해댔죠.

**사회자** : 남북공동선언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건 겨레의 열망이고 대세의 흐름이잖아요. 공동선언에 어떤 입장을 갖고 대하는가 하는거야말로 자주적평화통일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잣대고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가 안하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회창은 이걸 부정해나섰습니다.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당의 입장을 밝힌다는 6.19 기자회견에서 한 망발은 그 대표적사례라 하겠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날 이회창은 주제넘게도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느니 대북경협은 철저히 상호주의원칙에서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던 끝에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반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얼간망둥이같은 소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회창이 감히 남북정상회담을 입에 올리며 하나의 논쟁거리로 만든것부터가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남북 온 겨레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고 자기무식을 스스로 드러낸 망발이었다고 할수있습니다.

**사회자** : 그래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무지몽매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거예요. 분단 55년의 긴 세월속에 남북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마주앉은 것부터가 평화정착을 의미하는 거고 더욱이 공동선언에 명시된 교류협력방안자체가 긴장을 풀고 평화의 길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는겁니다. 이회창은 확실히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얼간정치인이라 그말이예요.

**오 일** : 네, 이회창이 대북경협도 상호주의원칙에서 풀어야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궤변중의 궤변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결국 이남이 무엇을 하나 주면 이북에서 무엇을 하나 받아내야 한다는 소린데 이따위 소리는 아마 뒷골목시장에서 장사꾼들끼리나 통할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때 법을 전공했다는 법관이라는 사람이 고작 고안해냈다는 것이 이따위 장사꾼들에게나 통할수 있는 소리인가 하는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건 이회창이 통일방안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반아래 풀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정말 초등학교 꼬맹이아이들도 웃을 일이 아닐수 없죠. 구태여 이회창이 그처럼 목청을 돋우어 부르짖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에 대해 말한다면 그건 이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체제를 변화시켜 이남의 체제에 흡수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어디 될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제도,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어느쪽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제도를 강요하려 하거나 상대방을 접수하려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대립과 충돌밖에 가져올게 없고 그렇게되면 조국통일을 무한정 뒤로 미루는 그런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거예요.

**사회자** : 그렇죠.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공작먹은 소리뿐이라고

애당초 평양상봉에 제동을 걸며 이런저런 까박을 달아붙이고 달갑지 않게 여겨온 이회창의 입에서 무슨 바른 소리를 기대하겠습니까.

**오 일** : 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개최소식이 전파를 타고 온 지구촌에 알려져 내외가 환호를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말이죠. 유독 이회창만이 눈과 귀를 막은채 골방에 들어앉아 손자와 화투놀이로 밤을 보냈다니까 그런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수 없죠. 이게 어디 통일하자는 사람의 작태인가요.

**김현규** : 네, 이회창이 남북관계개선이나 통일에 안중이 없는 반민족반통일분자라는 건 지난해 9월 임진각에서 있은 경의선복원공사기공식에 대한 행패만 봐도 잘 알수 있습니다. 이날의 기공식으로 말하면 비단 남북간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장 반세기이상 떨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잇고 나아가선 민족의 혈맥을 잇는 민족대단합의 시작이고 남북의 화해와 신뢰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내외는 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대 고약한 놀부심보를 가진 한나라당 이회창패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공식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을 뿐아니라 당사안에 들어앉아 이른바 성명이라는 것을 내고 전시성행사니, 북의 침습이니, 대북방어수준 약화니 하는 따위의 나발을 불어내면서 훼방을 놀았습니다.

**사회자** : 정말 그때 이회창패거리들이 놀아난 꼴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막혔던 하늘길이 열린데 이어 바닷길이 열리고 땅길이 열려져서 그것을 곧바로 통일의 길로 잇자는게 오늘의 민심인데 이회창패거리들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런 야단이냐하는겁니다. 그걸 누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하겠느냐 하는거예요. 이회창의 죄악중에서 또한가지 얘기가 되어야 할건 반북대결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운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실까요.

**오 일** : 네, 바로 그겁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오늘의 한반도정세, 남북관계가 냉랭한 분위기로 되돌아간다면 미국의 책임도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나라당패거리들 그리고 이회창이 못되게 노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을 넘겼죠. 그런데 오늘의 남북관계를 냉철히 투시해보면 공동선언발표 초기보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했더니 이북을 적으로 규정한 주적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고, 협력의 관계가 연출되는가 했더니 장사꾼끼리나 통할수 있는 상호주의 따위의 넋두리가 번연히 나돌아 남북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회창은 입을 벌릴때마다 북한불변론, 북한퍼주기, 과거사사죄 등 논리와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건 다 북을 자극하고 남북관계에 백해무익한 망발이죠. 북한불변론이란 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변하긴 뭐가 변해야 한다는거예요? 변해야 할건 북이 아니라 이회창 자신이예요.

**김현규** : 그렇죠. 그야말로 얼토당토않는 소리죠. 이회창이 그처럼 고아대는 북한퍼주기란것도 마찬가진데요. 원래 이 말의 발상지를 살펴보면 6.15선언으로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이룩되는 것에 심통이 난 이회창한나라당패거리들이 지어낸 허구입니다. 이 주장은 실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남이 실제로 퍼주기하는 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입니다. 예를 들면 군전력증강5개년계획에 무려 30조원, 그리고 내년초로 예정된 차세대전투기와 차기대공미사일, 육군차세대공격용헬기사업 등에 수조원대가 퍼주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퍼주기는 문제삼지 않고 통일투자를 퍼주기로 왜곡해 남북관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바로 이회창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입니다. 이회창패거리들은 남북간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끼어들어 한사코 훼방을 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를 그대로두면 남북관계개선이란 있을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자** : 그렇죠. 오늘 내외여론이 이회창을 두고 남북관계개선이나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극악한 반통일분자, 민의를 등진 반역자라고 단죄규탄하는건 결코 우연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회창의 죄행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건 친미사대가 골수에까지 들어찬 특등 친미사대분자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죠.

**오 일** : 한국의 역대통치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이회창 역시 여기서 예외로 될 수 없죠. 그는 야당총재이기는 하지만 그의 행적을 돌아보면 역대 어느통치배에도 못지않는 지독한 친미분자입니다. 이회창의 친미성향은 특히 부시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한반도정세가 이처럼 긴장격화의 길로 치닫고 남북관계가 침체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책동 때문인데요. 부시행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들면서 투명성이니 검증이니 뭐니하며 북을 고립압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 상용무기까지 감축하라고 강박해 나서고 있는데요, 이야말로 강도행위죠.

**김현규** : 더욱 가관인건요, 미국이 있지도 않는 북의 미사일위협을 걸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하려는건데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힘의 우세, 핵우세로 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 야망밑에 강행하려 한다는 거야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아닙니까. 때문에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세계가 이를 반대배격하고 있고 7천만의 온 겨레가 한반도의 평화파괴, 전쟁발발근원으로 낙인찍고 반대배격하고 있는겁니다.

**사회자** :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회창만이 부시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정책, 냉전논리를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쳐대고 있다는 건데요. 친미사대에 미친자만이 할수 있는 행위죠.

**오 일** : 남북공조보다 외세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이회창이고 전세계가, 온 겨레가 반대배격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일당이예요. 이회창과 같은 이런 쓸개빠진 친미사대매국노를 그대로 두면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이 실현될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제2의 6.25전쟁까지 터져 우리 민중은 그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회창이 저지른 죄행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그 죄행은 *** 뿐만이 아니고 부정비리에서도 역대 통치자들을 찜쪄먹을 정도입니다.

**김현규** : 정말 이회창이야말로 남에도 북에도 다같이 해를 주는 민족의 공적이라 하겠죠. 오늘 한나라당내의 고위층속에서 이회창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집권야욕에 눈이먼 이회창은 정계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가 높아가는건 결코 우연치 않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친미사대, 반통일, 반공, 반북대결의 총수 이회창을 민족의 족보에서 제명한지 오래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족과 민중의 의사를 거역하고 반민주, 반통일, 반공, 반북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이회창에게 뭇매를 안겨서 단호히 매장해버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이회창의 죄행 파해쳐본다≫ 오일씨, 김현규씨 두분 모시고 애기나눠드렸습니다. 이회창이 제아무리 통일분위기를 깨려고 훼방을 해도 그건 맨발로 바위돌차기나 같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통일대하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들을 퇴적층에 묻어버리면서 더욱 세차게 흐를겁니다.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지를 과시한 농민공동축제

한생을 빼앗기고 할퀴우며 짓밟히는 걸 숙명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통일의 담당자,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이북농민들과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통일토론을 벌였고 통일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장장 반세기여에 걸치는 기나긴 세월속에 남북간에는 정치인들, 청년학생들, 경제인들, 연예인들과 체육인들의 만남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농민들의 만남은 처음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남북농민통일대회는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하겠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지를 과시한 농민공동축제≫ 윤정원씨 자리 함께 했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민족분열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지난달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남북농민통일대회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말씀좀 해주시죠.

**윤정원**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에는 정광훈의장을 단장으로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단, 김순옥회장을 단장으로하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대표단, 승상섭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기타 관계부문일군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7대종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청년학생추진위원회 대표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대회개막식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단장인 승상섭위원장의 축하연설에 이어 전농 정광훈의장과 전여농 김순옥회장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회통일연단에서는 평양시 농동맹 허덕호위원장, 전농 조국통일위원회 송헌위원장, 농동맹 중앙위원회 김순현회장, 전여농 윤금순부회장의 토론들이 있었죠. 축하연설들과 토론들에서는 일치하게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 민족의 통일열망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거, 조국통일의 장애물이고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적 야망을 노리는 일본의 재침책동을 반대해서 민족공조, 남북공조로 나가야 한다는 거,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남북농민대단결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 그러고보면 남과 북의 농민들이 단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나라를 통일할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대회에서는 남북예술인들의 축하공연과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잖아요.

**윤정원** : 네,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을 안고 진행된 남북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예술적재능, 통일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속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도 있었는데요. 남북농민들은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남과 북의 농민대표들은 금강산이 떠나갈 듯 서로 얼싸안고 노래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 힘을 합쳐 양단된 삼천리강토를 하나로 이어놓으려는 통일의지를 과시했는데요. 연회장은 말그대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로 들끓었습니다. 대회에서는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의 농민들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마음도 하나, 힘도 하나로 합쳐 공동행동을 적극 벌여나갈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말이죠,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이문제에 대해서 고찰해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는 한마디로말해서 남과 북의 농민들의 단합된 힘, 민족의 확고한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대회합이었다고 할수 있죠.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농민통일대회에서 남북농민들의 대표들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은 하나, 마음도 하나, 하나로 뭉친 민족의 거대한 힘과 통일의지를 누구도 꺾을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죠. 비록 50여년만에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농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 첫순간부터 서로의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목청껏 외치는 그 함성은 금강산하늘가에 메아리쳤던 것입니다. 이번 농민통일대회에서는 우리 겨레의 민족적정서와 예술적감흥, 통일의 염원이 담긴 노래와 춤을 올려서 남과 북의 농민들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한동포, 한형제라는 것, 서로 마음과 뜻, 힘을 합치면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우리 나라의 명산으로 소문난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예술인들이 민족의 정서가 짙고 애국의 넋이 차넘치는 노래와 춤마당을 펼쳐놔서 남북농민들을 민족의 얼과 애국의 뜻으로 통하게 했고 결국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그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더욱 고양되었습니다.

**사회자** : 이번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과시했을뿐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의 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죠.



**윤정원** : 그렇죠. 바로 거기에 이번 남북농민통일대회가 갖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수가 있죠. 남과 북이 내외에 엄숙히 확약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족자주통일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실제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건 그 활력을 실증해주고 있는거죠. 그러기에 지금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민중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그 이행을 주장하고 있고요, 나라의 통일을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로 이룩해야 한다면서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는거죠.

**사회자** : 그러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민들앞에 나서는 과제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네, 무엇보다도 농민들자신이 민족구성원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투철한 입장과 자세를 갖고 농민운동에서 민족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이고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할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잖아요. 그런만큼 농민운동에서는 농민들 자신이 통일문제해결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가도록 이끌어야 하죠. 그리고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훼방을 놓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하죠. 이것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걸맞게 민족공동의 목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겁니다.

**사회자** : 네, 남북농민들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정원** :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6.15공동선언은 어느 일방만 이행해도 안되고 남북이 다같이 이행해야할 민족공동의 선언이고 통일의 이정표인만큼 남북이 힘을 합쳐 이행해야 하는거죠. 이번 남북농민통일대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남북농민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과시되었잖아요. 그런만큼 이미 내디딘 통일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남북농민들이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겁니다. 남북농민들의 연대연합이야말로 민족의 단합된 위력을 과시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근본방도로 되는 겁니다.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농민들의 단결된 힘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노동자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고 변혁의 기본동력인 농민들은 민족자주의식으로 정신무장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지를 과시한 농민공동축제≫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의 의미에 관해서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드렸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선다면 통일은 기어이 이룩되고야 말겁니다.

#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최성원)

강조 6.15주간 편집부

김대중정권의 3대 성격은 친미예속성, 반민중성, 개혁성이다. 김대중정권의 친미예속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요구에 따라서 그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또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지배와 수탈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예속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대중정권이 남측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희생하면서 남측 독점자본의 요구와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국주의세력의 경제적 수탈이 더욱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자행되어 사회 전반의 물질 · 경제적 조건이 날로 피폐해지고 남측 민중의 생존권은 더욱 짓밟히고 있는 데도 김대중정권은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개혁성이란 무엇인가? 그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김대중정권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이 곧 민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정권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달리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남측 민중이 그 개혁성조차 외면하고 있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과 남측 독점자본의 집중적인 수탈에 짓밟히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서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생존권 투쟁의 시각에서 보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김대중정권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정권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가진 정권은 민족민주전선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 일부에서 친미예속적이고 반민중적인 김대중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물음은,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정권의 성격을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그리고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에 국한해서 파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이 제4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4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북측에 대한 화해 · 협력성을 말한다. 바로 이 화해 · 협력성은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정권과 역대 군사독재정권들 사이에 차별성을 두어야 할 근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정권의 화해 · 협력성이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가리우는 위장막 정도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성격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화해 · 협력성은 위장막이 아니라 제4의 성격으로 실재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화해 · 협력성을 실체로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화해 · 협력성을 상대하는 새로운 정치사업을 포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되지만,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투쟁을 전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의 화해 · 협력성을 상대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파악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3자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북측,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4자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 4자의 관계 가운데 지금 조선반도 정세의 변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북측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변화다. 북측과 미국의 관계는 1945년부터 1998년까지 적대관계로 일관되어 있었지만, 1999년에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게 된 뒤부터 적대관계와 협상관계가 중첩되더니 2000년 10월 조 · 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에는 차츰 협상관계가 우위에 올라서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부시 정권으로 교체된 지금 북측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냉각관계는 비본질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협상관계로 곧 복귀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점은, 이러한 북측과 미국의 관계변화가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친미예속정권이 역대 친미예속정권들과 다르게 북측과 화해 · 협력을 추진하게 된 근본원인은 애초에 김대중정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된 데 있었다. 북측과 미국의 관계변화가 친미예속정권의 대북 적대성을 약화시키면서 화해 · 협력성을 지니게 만든 것이다. 만일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협상관계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김대중정권은 대북 화해 · 협력성을 지닐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북측은 친미예속정권이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라 지니게 된 새로운 성격, 곧 북측에 대한 화해 · 협력성을 통일전선으로 견인 · 포섭하였다.

돌이켜 보면, 북측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 4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다. 또한 북측은 광주학살의 주범 가운데 하나였던 노태우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그 정권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북남) 기본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은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도 없었

고, 북측에 대한 화해·협력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파시스트 정권의 전형이었다. 북측이 그러한 정권들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북남)기본합의서를 내오는 성과를 이룩했다면, 오늘 화해·협력성을 지니고 있는 김대중정권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북남) 사이의 화해·교류·협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측이 김대중정권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였다면 2000년 6월의 역사적 사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통일정세는 유리하게 전변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북측이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정권을 상대로 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만일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측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통일정세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북측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정세가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었던 1972년에 당시 남측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세력이 만일 박정희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투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투쟁은 애초에 의도한 바와는 달리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혼란과 장애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퇴진투쟁은 박정희 정권이 7.4 공동성명을 부정하였을 때 전개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이 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경우에 전개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개해야 할 투쟁이 아니다. 문제는 조성된 정세에 맞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면에 배치하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의 현 정세에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그들은 조선반도 정세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세관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남측 민족민주전선, 미국, 친미예속정권 3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사이의 4자 관계에서 정세변화를 결정짓는 요인이 북측과 미국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을 논외로 치고 3자 관계를 분석한 나머지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적대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를 파악하려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적대관계가 정세변화의 중심이 아니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정세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정세변화의 중심축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현 정세에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정세변화의 중심축인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는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협상관계로, 그리고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분기점으로 하여 통일전선의 관계로 더 전진하였다. 그러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는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 이전의 적대관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여기서 통일전선의 관계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조관계≫라는 개념을 쓰는 까닭은 김대중정권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통일전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정권을 상대로 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북측의 정치역량이다.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 이외에서는 공조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공조관계라는 개념은 공동으로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그 개념은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이 6.15공동선언이 실현되도록 상호협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92년 9월 필리핀 정권의 철군파가 미군 철수를 결정하였을 때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타도투쟁과 무력공격을 중지하고 그 결정을 지지·엄호하였다. 종래의 적대관계가 미군 철수를 위한 공조관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정권에 대해서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타격과 협조의 병행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하고 화해·협력성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양면전술이 그것이다. 타격과 협조를 병행한다고 말하면 막연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더 밝혀야 한다.

첫째, 타격의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타격에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상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가 자기의 부정적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통제·봉쇄하기 위한 전술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타격목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에 대해서 전술적 타격을 가하되, 상대의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전략적 타격을 가하는 정권 타도투쟁이나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타격과 협조를 병행하되 선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조를 앞세우면서 타격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김대중정권이 화해·협력성을 폐기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그때 가서는 민족민주전선은 마땅히 전략적 타격을 집중하면서 정권 타도투쟁,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6월의 너의 이름 새로 짓는다

-금강산을 참관하고 돌아온 서울에 사는 김성호씨의 시-

금강산 봉래산 풍악산 개골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계절마다 너의 운치 이채로워
신을 이룬 계절마다 묘경도 다르나

꿈에도 그리웁던 금강산아
6월에 내 너를 찾았으니
오늘의 뜻깊은 구룡연 등반길에선
봉래산 너의 진미 때마춤 무성한 꽃향기에 취해나 볼까

허나 안일했던가
이골 저골 메아리치는 통일노래소리
절경에 빠져드는 나의 마음 깨운다
금강의 절경에 앞서 안겨드는 통일절경이여

들려오누나 계곡에 구르는 수정같은 물소리에 먼저
하나로 어우러진 웃음소리, 웃음소리
서울 평양, 남과 북의 겨레가
하나로 엉켜드는 뜨거움

보이누나 절묘한 경관에 앞서
6.15공동선언 힘합쳐 실현하자
학자, 종교인, 정치인, 문화인, 경제인
서로서로 굳게 잡은 손과 손

6월의 금강산아!
등반길에 파고드는 소중한 나의 생각
너의 자태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민족의 넋, 통일의 의미가 없다면
더 이상 겨레에게 명산으로 가려질수 없으리

6월의 금강은
후더운 겨레사랑으로
남의 동포 품에 안아 등반길에 세워준
**김일성**주석님의 영원한 사랑

6월의 금강은
너의 일만산악 그 칼날같은 민족의 존엄으로
6.15공동선언 통일의 잣대를 우뚝 세우신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의지

6월의 금강
오- 너는 구룡폭포의 기세찬 내달음같이
호호창창 통일에로 드팀없는 7천만, 7천만을
너르게 품에 안은 통일산, 통일명산이어라

여름의 금강산아! 너의 이름 봉래산도 좋다하라
허나 등반길 오르며 내 너의 이름 새로 짓는다
겨레의 웅지 담아 신념을 담아
6월의 금강 너의 이름은
통일금강, 통일명산이어라



#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 개막

(평양 주체 89년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 개막식이 11일 인디아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디아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친선 및 련대성 조직,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 서기장 옴 프라카쉬 만뜨리는 연설에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을 벌릴데 대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호소에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정립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은 조선통일의 기치이며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강령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정립해 주신 조국통일 3대헌장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아시아와 인디아 인민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연설들에 이어 참가자들은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 조국통일3대헌장지지 국제적서명운동에 9,890여만명 망라

(평양 주체 89년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3월부터 시작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세계적판도에서 계속 광범히 벌어 지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는 정계, 사회계, 경제계, 군부, 출판보도계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운동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위원장, 에짚트나쎄르아랍민주당 총비서, 뻬루민족회복당 위원장 등 70여개 나라의 90여명의 정당 지도자들과 80여명의 청년조직, 로조조직 책임자들이 8,408만여명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특히 인디아, 수리아, 에짚트, 가이아나, 로씨야를 비롯한 20여개 나라의 당 및 사회단체들에서는 각각 수십만명씩 참가하였으며 기네에서는 114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나이제리아, 꽁고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해당 나라 정계, 사회계 등각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의 참가밑에 서명운동과 관련한 련대성행사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언하였다.

제2차 유럽 및 아시아지역 진보적정당들의 회의에 참가한 32개 정당대표들과 세계직업련맹 제14차대회에 참가한 25개 나라의 30개 직맹 및 로조 대표들, 국제학생동맹 제17차대회에 참가한 13개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들, 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한 20여개의 평화단체들도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서명운동이 시작된후 지난 4개월남짓한 기간에 80여개 나라와 지역의 330여개 정당, 사회단체, 친선 및 련대성조직 그리고 지역 및 국제기구의 책임인사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9,890여만명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 통일헌장지지 국제적서명운동 참가 (100여개 나라에서 1억 5,655만여명)

(평양 주체 89년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의 발기와 호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운동에 지금까지 100여개 나라에서 500여개의 정당, 단체, 친선 및 련대성조직, 지역 및 국제기구들 그리고 정계, 경제계, 학계, 출판보도계와 군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대렬은 달과 달을 이어 끊임없이 늘어나 아시아의 15개나라에서 8,000여만명, 아프리카의 35개 나라에서 5,500여만명, 아메리카의 30여개 나라에서 800여만명, 유럽의 20개 나라에서 900여만명, 오세안주에서 20여만명, 국제기구들에서 수백만명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서명운동참가자수는 총 1억 5,655만여명에 이르게 되였다.

# 통일전선실현을 위한 투쟁

## 조선로동당이 걸어온55년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은 창건후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갔다.

일제강점으로부터 나라가 광복된후 조선에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반혁명세력은 이 중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당기려고 책동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시기 통일전선운동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개적인 련합전선의 형태로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정당들이 자기의 성격에 맞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민주주의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석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민주주의 림시정부수립,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사회의 민주주의개혁사업에 여러 정당들을 공동으로 참가시켜 그 과정을 통해 협력과 단합을 실현하였다. 또한 통일전선사업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한 반동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철저히 고립청산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은 주체35(1946)년 7월 4개의 정당과 13개의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상설적인 조직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949년 6월에는 미제와 친미괴뢰들이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에 대처하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주력량을 망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친미괴뢰도당의 직계정당을 제외한 북과 남, 해외의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되였다. 통일전선실현에서 조선로동당은 자기 활동과 사업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주도적역할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조선로동당이 통일전선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은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 주체 90, 7월 29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금옥노인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명장중의 명장으로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7월 27일 파월 미국무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화해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겨레의 반대를 무시하며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하는 세계제일의 깡패국가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연합은 또 미국무장관이 어떤 치장으로 모습을 가리우고 무슨 거짓으로 속심을 감추어도 우리 국민과 온겨레는 그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죽음의 사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찬 더러운 발길을 돌려 즉각 이땅을 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엔엠디, 티엠디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27일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도심에서 파월일행의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공대위관계자 4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앞 젊음의 거리에서 파월방한규탄결의대회를 열고 파월방한반대, 엠디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프랭카드를 들고 **공사앞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그들은 서울 용산미군기지앞으로 집결해 미사일방어저지와 용산미군기지반환촉구대회를 갖고 미군기지기름유출사과요구와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대위관계자 50여명은 파월의 도착예정지인 성남 서울공항에서 방한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대위은 파월의 방문지인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위치해 있는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부근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장관 공관과 파월의 숙소가 마련된 남산 하얏트호텔앞에서 집회와 철야 1인시위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6.25전쟁당시 미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7월 26일 사건현장인 충북 영동군 **면 노근리 경부선철도 쌍골에서 생존자 및 유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노근리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위령제는 헌화봉헌과 경과보고, 위령 및 추모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돼 51년전 피난길에서 억울하게 숨져간 영혼들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위령사에서 위원장은 51년전 이 자리에서 영문도 모른채 숨져간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사건현장에서 위령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1년이상 진상조사를 벌인 미국은 피난민들이 미군의 통제에 따르지 않아 총을 쐈다는 등 진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개해 했습니다.

위원장은 또 미국이 국가이익을 위해 억울한 영혼들을 외면한채 오만과 횡포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가신님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책위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 진상왜곡조작책임자처벌, 조속한 손해배상, 진실을 덮으려는 위령탑 및 장학기금 설치반대, 유엔인권위 제소를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는 5개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회창을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가 최근 각계각층 1,350명을 대상으로 ≪이회창 이대로 좋은가≫라는 물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92.5%가 그를 빨리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써 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며 그 이행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 이른바 북에 퍼주기를 떠들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냉전논리만 펴고 있다는 것, 대통령병에 걸려 민생을 외면한채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이런 자가 대권을 잡으면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전쟁까지 다시 터질수 있고 우리 민족이 그 희생물이 될수 있다는 점들을 꼽았습니다.

한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7월 26일 조선일보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조합원과 함께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맹은 조선일보가 언론의 소임을 저버리고 사주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구독거부선봉대를 구성해 피서지나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연맹은 특히 정부출연기관 등에 조선일보구독중단을 촉구하고 공공연맹산하 모든 사업장에 조선일보기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25일 일본역사교과서왜곡바로잡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인사회 전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주체 90, 7월 30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김모대표가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26일 동료들앞에서 그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때에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통일대행진에 더큰 활력을 가해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남북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마음을 합쳐 통일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김정일**영수님의 덕분이다. **김정일**영수님의 민족자주통일의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애국애족에 넘친 숭고한 광폭정치가 오늘과 같은 뜻깊은 통일대회를 안아왔다.

나는 남북농민들의 역사적인 남북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신 **김정일**영수님께 이남의 농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싶다. 나는 이번대회에서 확약한 대로 6.15공동선언이 성실히 이행되고 8.15에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

미8군용산기지에서 기름오염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미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27일 미군측에 복원조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또한 미군이 기름을 유출시켜 용산기지내의 토양과 지하수 등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만큼 손해배상청구는 ******검토중입니다.

한편 한미지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데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독일에서는 미군이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키면 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도록 돼있다며 우리도 미군측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치외법권지대인 미군기지안의 환경오염*****그 책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면서 기지내의 환경오염사고를 방지, 규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계에서 반미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월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이 27일과 28일 강력히 벌어졌습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국회의원 **명은 7월 27일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책동과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

국회의원들은 **에서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일본정치**집단의 군국주의패권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총리가 각성할 것과 군국주의부활을 **하는 일본역사교과서내용 9군데를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이회창이 남북간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 무모

한 퍼주기니, 국민혈세탕진이니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무분별한 망언은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려는 반민족적 책동이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기필코 막아보려는 부시정권에 **한 이회창과 같은 보수세력들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처해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방치해둔다면 남북 대결과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전쟁접경에로까지 갈수 있다. 외세에 추종하며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이회창같은 자들은 마땅히 숙청해 버려야 한다.≫
이회창을 반대하는 기운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높아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고 있는 이회창때문에 한나라당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있다. 이회창은 민족의 수치이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만일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쓴다면 전쟁이 터지든가, 무슨 변이 날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이회창은 더이상 국민과 함께 살수 없는 인물이다.≫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천인선언위원회는 7월 27일 성명을 내고 비리언론사의 거듭남을 촉구한 종교인천인선언을 정부외곽단체의 선언으로 매도하고 순수한 종교인의 양심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한나라당의 치졸한 짓에 분노한다며 *******.

금속산업노동자연맹은 7월 27일 경기도 광명시의 ***기아자동차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가 ***에 대해 왜곡된 **벌이겠다고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노조허용을 촉구하는 제2차 전국공무원대회가 7월 28일 오후 3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과 노동단체조합원 등 모두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 주체 90, 7월 31일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지체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각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자진출석한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9기 한총련대의원 4명 가운데 2명이 구속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7월 28일 오전 10시 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상욱씨 등 한총련 대의원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뒤 이중 박상욱씨와 충남대학교 경상대학생회장 박경철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씨 등은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선출된후 지난 6월 2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학생운동에 적극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자진출석한 이들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앞으로 대전지검과 대전지법 앞 등지에서 계속적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역시민단체들과 함께 구속의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한나라당내에서 신당창당 움직임이 활발해져 한나라당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반통일분자이며 극우보수파인 이회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개혁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창당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당창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와 김원웅, 안영근, 서상섭의원 등 지난 97년 민주당출신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인 것입니다.
신당창당움직임은 여야개혁성향의원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과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화해와 전진포럼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수적인 한나라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회창 등 당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내에서 보혁갈등이 심화되면서 개혁성향의 인물들이 새로운 당을 창당해 이회창과 결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당창당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은 신당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부영부총재는 오는 10월 창당을 목표로 원내에서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해 활발히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과 행동으로 당귀의회부설까지 나돌고 있는 김원웅, 안영근의원은 여러 곳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고심중이라며 당분간 당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당창당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 신당창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당이 창당될 경우 한나라당은 개혁파와 보수파로 분열될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에 큰 타격이 아닐수 없고 또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분열의 조짐을 맞게 된 것은 총재인 이회창이 극우보수파인데다가 당을 사당화해서 독선과 독판치기를 일삼고 있는데 대한 당내 분노가 극도에 달한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냉전논리를 펴는 등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나라당내에서의 개혁적인 신당창당 움직임은 극우보수집단인 한나라당을 공중분해시키고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해야한다는 각계 민중의 주장에 부합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최근 언론의 보도행태가 민주화에 역행하고 사회발전을 크게 지체시키고 있다면서 왜곡보도의 선두에 서있는 조선일보의 구독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91년 만전쟁기간에 이라크군을 상대로 환각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화학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고 남아프리카공화국통신이 7월 27일 보도했습니다.
화학전 전문가인 우터박사는 이날 남아공 고등법원 진술에서 만전쟁기간에 촬영된 화면을 정밀분석한 결과 당시 이라크군들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에서는 병사들의 무표정한 모습과 동공확대 등 전형적인 환각제 부작용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증상은 착란성 독가스인 ≪비제트≫계열의 환각제 사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이 7조 2,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해 훌륭한 녹색 가이아나당 서기장, 페루 사회혁명당 서기장, 가이아나 **서기장, 가이아나***각각 연대성 전문을 드렸습니다.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성월간에 즈음해 7월 11일에서 19일 ***연구회와 마다가스까르 주체자문예사상연구협회, 가이아나 조지타운 **김정일**동지저작연구소조에서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 주체 90, 8월 1일

한민전 대변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고전적 저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발표 10돌에 즈음해 즈음해 7월 3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하 생략)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했던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관광지로 이름높은 금강산이 이제는 남북민중들의 만남의 광장, 통일의 광장으로 지구위에 우뚝 솟아오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의 높으신 통일의지와 우리 민중에 대한 하해같은 사랑과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같은 농군들이 금강산으로 가서 통일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정말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노인회소속 회원 2천여명은 7월 31일 오후 서울종묘공원에서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집회를 열고 과거 일본의 압제와 만행을 경험한 노인세대가 엄연히 있는데도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일본에서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제거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모씨는 이회창이 시기상조론을 떠들면서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망발은 국가보안법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철폐는 우리 민중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 이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자주와 통일, 민주를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가.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온겨레의 일치한 통일열망을 탄압하고 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시기상조론을 떠들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통일열기를 가로막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두겠다는 반통일, 반민족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그대로 둔다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와 통일은 고사하고 한국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생각만해도 전율할 일이 아닐수 없다.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이 그대로 있는한 우리 국민은 절대로 편할수 없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7월 3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할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민교협은 이를 위해 각종 강연장에서 언론개혁정당성을 주장하고 개강하면 학생들과 언론개혁토론회를 개최하며 조선일보기고, 취재, 구독거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남북간의 논의가 미국의 반대로 보류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세연 국정원통일특보가 밝혔습니다.

7월 25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일본역사교과서왜곡바로잡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에 적극 대처해 나갈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7월 31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서기장 일행, 이란 외무성 총국장, 러시아 뻬쩨르스크 과학예술아카데미대표단, 멕시코 프에블라시 친선대표단 등 외국인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여사 서거 69주기에 즈음해 이북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이 7월 31일 아침 칠골혁명사적지에 모신 강반석여사의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여사의 묘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최근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에서 고구려 벽화무덤이 발굴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주재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련합왕국 (영국)대사관이 7월 30일 평양에 개설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반미공동투쟁월간과 6.25전쟁승리 48돌에 즈음해 루마니아 근로당 서기장, 루마니아 사회주의로동당 위원장이 연대전문을 드렸습니다.

미국 뉴욕 센터 재단의 셀리 헤리슨연구원은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통해 북미대화재개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체 90, 8월 2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모씨가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1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관변단체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순수한 시민운동을 매도하고 특정집단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의혹을 퍼뜨리는 행태는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공당의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을경우 이회창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또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법에 따른 정당한 예산집행인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근거로 관변단체라고 주장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나라당도 관변정당이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집회를 마친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한나라당에 전달하려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횡포는 각계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수원에서 국정홍보대회를 열고 이회창총재 부친의 친일행위여부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안동찬최고위원은 일제시대 검찰처지는 독립지사를 탄압하고 고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써 이총재의 부친도 검찰처지시절 이러한 역할을 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총재 부친의 친일여부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김근태최고위원도 민족을 배반한 친일인사들이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용납할수 없는 만큼 이총재부친의 친일경력여부를 묻는 민주당 당보의 내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계에서 반이회창기운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이 친일분자의 후예임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대우자동차노조원 66명이 1일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13억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가 비리사주일가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사가 본사1부와 창녕공장에 내린 직장폐쇄조치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31일 지난 84년과 86년 각각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이장룡, 강위철씨에 대한 수사가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면서 조사를 담당했던 10명을 증거날조와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남산 중턱에 있는 옛 안기부건물을 종합방제센터 등으로 쓰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금강산사업대출을 야당이 법적으로 문제삼은데 대해 법원이 소송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일 국회상임 아님 피어스 아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나이지라아연방공화국 국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반미공동투쟁월간과 6.25전쟁승리 48돌에 즈음해 방글라데시 노동당위원장이 연대전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라오스 신문 젠 티안 마이 지난 7월 5일자가 특집했습니다.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월간에 즈음해 7월 19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방글라데시 주체사상연구소에서는 토론회가, 페루 노트 토르탈레스의 칠련 초등학교에서 집회가, 우간다 캄팔라 학생센터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에티오피아 아디스 ***에서는 태권도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 주체 90, 8월 3일

전라남도 보성군에 사는 농민 김모씨가 지난 7월 29일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한 **로 금강산에 다녀온 소감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국민모두가 친일주구의 아들 이회창은 마땅히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가 1일 각계 인사들과 시민 등 1,520명을 대상으로 ≪친일파후예 이회창을 그냥둘수 있느냐≫는 물음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6%가 조금 넘는 1,514명이 이회창은 마땅히 청산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국민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대답해 결국 국민 모두가 이회창을 청산하는데 대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첫째로 일제시대때 검찰서리를 하면서 독립운동자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해왔던 민족반역자의 아들 이회창이 정가에 기어들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과 관련해 전국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회창만은 ***에 대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회창도 친일파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로 이회창은 전민족의 의사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반북대결만을 고취하면서 냉전을 강화하는 민족반역자일뿐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를 방치해둔다면 전쟁참화***.

반이회창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자택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며칠전부터 밤10시부터 11시사이에 이회창자택으로 전화가 자주 걸려오곤하는데 자신을 민족자주수호회회원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친일후예 반통일분자 이회창 즉각 퇴진하라 이런 말을 하고 *******.

이같은 전화는 ***걸려오고 있지만 그는 여론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

## 주체 90, 8월 4일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체육인 김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했습니다.

그는 최근 TV화면을 통해 이북의 계순희 선수가 2001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52킬로그램급 경기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이하 생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천인선언준비위원회 대표 12명은 지난 2일 낮 한나라당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외곽단체들이 정부의 배후조정에 의해 홍위병식으로 특정언론을 죽이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7월 27일 박관용의원의 발언은 공당이 자기를 의심할수 밖에 없는 망언이라며 한나라당 이회창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전교조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집단이라고 한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2일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고 김만제의 사죄와 이회창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대표단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교조를 사회주의로 매도한 김만제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견으로 넘길수 없는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공식입장과 공개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대표단도 이날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언론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정부의 홍위병이라고 주장한 박관용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취소와 그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대책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계속 운운하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은 한마디로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반통일논리이다. 주한미군철수는 우리 민중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더욱이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명분을 상실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미군이 이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민중이 미군의 살인과 강간, 약탈과 폭행의 대상으로 되어왔는가. 또 얼마나 많은 우리 강토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과 환경파괴행위로 인해 오염, 파괴되어 왔는가. 그런데도 이회창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계속 운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한사코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물론 이땅을 미국의 천국으로 완전히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고 이땅의 모든 것을 양키들의 농락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말 애비때부터 민족반역을 밥먹듯하는 이회창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한총련 학부모협의회는 1일낮 청와대앞길 코오롱호텔근처에서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수배해제와 한총련이적단체규정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강원용목사 등 사회원로와 시민단체인사 31명은 지난 2일 서울 기독교청년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사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였다며 언론사 스스로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일**장군 환영준비위원회가 재러조선국민중앙협회에서 7월 27일 결성됐습니다.

**김정일**장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국제고통련과 우즈베키스탄고통련, 원동고통련에서 7월 28일과 29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일본선박이 정상적인 항행을 하고 있던 이북선박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것과 관련해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했던 영국레이버당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이 체류기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인터뷰를 벌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의 요지를 이집트 알시아시 7월 29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전문을 이란 신문 ≪이란 뉴스≫ 7월 31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성월간에 즈음해 이집트 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이 7월 1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레바논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알 아프타 사원지역의 ***하려는 이스라엘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건상이 7월 30일 페루 카라카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전개계획을 비난했습니다.

## 주체 90, 8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과 상봉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하 생략)